

2019년 가을

# 노란달팽이

(사)노란달팽이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적기업「노란달팽이」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예비사회적기업「들다방」  
노들장애학궁리소

\* 표지그림  
이봉규

2019년 스물여섯번째  
**노란들판의 꿈**

“  
이제  
나간다.  
나, 간다.”

일시 | 2019.10.4.(금) ~ 10.5.(토) 장소 | 마로니에공원

함께 만드는 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들장애인야학</li> <li>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li> <li>사회적기업 노란들판</li> <li>장애인문화예술관</li> <li>사단법인 노란들판</li> <li>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li> <li>예비사회적기업 들다방</li> <li>노들장애학공리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4(금) · 10/5(토)</li> <li>노들야학 무상급식 후원바자회</li> <li>- 10/5(토)</li> <li>14:00 박종필감독 다큐(시설장애인의 역습) 다시보기</li> <li>15:00 피레아드 킷치전</li> <li>16:00 노들리플리스트(People First)</li> <li>17:00 노란들판의 꿈</li> <li>19:00 탈시설 거원 동네 한 바퀴 피레아드</li> </ul>

후원 | 국민은행 488401-01-222275 예금주 사단법인 노란들판

함께해요, 2019 노란들판의 꿈  
“이제 나간다. 나, 간다.”

#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 제120호 2019.09

만든곳 (사)노란들판·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적기업「노란들판」·장애인문화예술「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예비사회적기업「들다방」·노들장애학공리소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상희 김진수 서기현 정우영 조상필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동송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02-518-1571)

\*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 기부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김유미

03 어디선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 장선정

05 [고병권의 비마이네]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 \* 고병권

09 [장판 핫이슈] 장애등급제 폐지가 "가짜"라던데 진짜인가요?

\* 노들 편집위원회

14 석암투쟁 10년 기억 기록 \* 노들 편집위원회

30 [노들은 사랑을 신고] 석암투쟁 10년 그리고, 기록과 용남의 이야기 \* 명희

33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故 황정용을 보내며 \* 노들 편집위원회

38 어느 발달장애인의 생존기록 \* 홍은전

40 새로운 도전이었던, 어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하여 \* 박미주

42 [노들아 안녕]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 박경인

43 [노들아 안녕] 노들과 상빈의 만남 \* 박상민

46 [노들아 안녕] 산재운동에서 장판으로! \* 박영일

48 [노들아 안녕] 지금-여기, here and now \* 위하늘

50 [노들아 안녕] 노란 : 들판 \* 한예인

52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활보로 자립하고 공감하다 \* 정지원

53 [교단일기] '선'과 '속도' \* 총근

55 살아 숨 쉬는 동그라미의 춤판 \* 소영

59 [형님 한 말씀] 노들야학 후원 님들께 \* 김명학

60 '비와 당신' 2019년 후원주점 평등한 밥상 \* 진수

65 자상버스 함께 탑시다! \* 최영은

66 [대학로야 같이 놀자] 울퉁불퉁 대명 길이 달라졌어요 \* 박정숙

68 종로장애인권영화제를 마치고 \* 꼬비

70 서울 인강학교 공립화에 즈음하여 \* 이승헌

7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교사 세미나 후기 \* 이가연

75 귀어문화축제에 참여하며..... \* 김상희

77故 박종필 2주기 추모포럼, 사회운동 활동가의 건강권을 묻다 \* 강혜민

84 [노들 책꽂이] 눈부신 생명의 이야기 \* 박준호

87 고마은 후원인들

## 노들바람을 여는 창

김유미 <노들바람> 편집인

석암재단이 운영하는 베데스다요양원에 살던 이들이 시설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시설 권력에 문제 제기하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이들 중 8명은 2009년 6월 4일 경기도 김포의 요양원에서 집을 싸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으로 왔습니다.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리는 여러 문화행사들에 짝짝함을 선사하며, 이 8명과 지지자들은 공원 구석에 천막을 치고, 매일같이 자리를 지키며 농성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목표로, 시설에서 다시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거대한 방향 전환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석암투쟁이 10년을 맞이한 해인 2019년, 연초부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석암투쟁을 기념할 수 있는 일들을 기획했습니다. '석암 8인'이 마로니에공원에 집을 풀었던 6월 4일, 그 날에 맞춰 1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하고, 공원에서는 지난 10년의 일들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랄까, 아주 작지만 큰, 조금 인 것 같지만 누군가에겐 삶 자체가 바뀌어버린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들바람> 가을호에 이 십년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흠뻑일까 아쉬운 이야기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그 이야기들을 꼬집어내, 꾸역꾸역 정리 중입니다. 이야기가 긴데 버릴 것을 찾지 못해, 다 싶습니다. 찬찬히 읽어봐주세요.

석암투쟁 십년 무용담을 나누는 이 즈음, 누군가 또 다시 다급하게 노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지고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은 사십대 중반의 한 발달 장애인. '시설로 가야하겠네요'라는 그 말에 맞서고, 그 삶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노들이 할 일 같았습니다. 혼란을 맞은 이 언니의 삶처럼, 그 옆에서 비틀비틀 요동을 겪으며 낯선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봅니다.

## 어디선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장선정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당신이 잘 계시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Si vales bene est, ego valeo

<라틴어 수업>, 한동일

2017년에 일을 잠시 쉬었어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였는데 좋은 엄마 코스프레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죠. 시작은 그랬지만 과정은 예상과 달랐어요. 출퇴근을 하지 않으니깐 띄엄띄엄 끊어지던 생각들이 이어지기도 하고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책은 많고도 많더라고요.

생각이 풍부해지는 알찬 날들이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대는 정신없고 어수선하고 서툴다 지나갔고 30대는 아이 1번과 2번을 낳고 키우다 보니 통째로 기억 자체가 희미하고, 어머?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중년이 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달았어요.

신선의 나라에서 복숭아를 먹으며 놀다 온 것도 아닌데 흑- 늙어버린 느낌, 똑똑치 못 해 인생의 골든타

임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은 아쉬움, 할 수 있는 것도, 무언가를 할 만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한 섭섭함을 인식하니 세상과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어느 자리에 비관이 집을 짓고는 웬만하게 지나갔던 일들이 꺼슬해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았던 오래된 관계들도 되짚어 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무얼 배우고 무얼 쌓은 건지 도대체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더더욱 캄캄한 채로 일상다반사와 주변사람들의 행동을 가장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서 터널로 진입했죠. 말하자면, 딱히 이렇다 할 이유도 해결 방법도 없이 총체적 난관에 부딪친 거라거나 할까 그랬어요.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매일 할 일이 있으니까 오도가도 못 할 정도라고 할 순 없었지만, 시력과 판단력을 동시에 잃어버린 것처럼 흐린 날들이었어요. 밀도 끝도

없는 시행착오가 이어졌어요. 들리고 싶지 않았지만 모두 성공하진 못 했죠.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어 갔고, 활동반경이 축소되면서 일상의 동선이 거의 일정해 졌어요. 꽤 애썼지만 여러 갈래의 생각들은 자리 잡지 못 하면서 떠돌았는데 그냥저냥 잊고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한 걸음도 꿈쩍할 수 없는 무력감이 들곤 했어요.

그 중에 가장 괴로웠던 건 이 모든 감정들의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돌아보니 그렇다는 거긴 한데) 그 동안의 삶에서 내가 알던 나의 기질이나 성격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이렇 일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끝나질 않았어요. 길고 고통스런 시간이었어요.

몇 주 전쯤이죠? 여름휴가가 시작되었는데 계속 비가 내렸어요. 에어컨과 제습기 사이를 맴돌다가 불현듯 나는 단지 '인정'하기 싫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모든 '생'에는 '로병사'가 따른다는 것을, 모든 '인연'엔 '끝'이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이고 성실한 선택을 했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삶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았지만 멀리 있을 줄만 알았던 이미 와 있거나 곧 닥칠 삶의 과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그건 바로 지금부터는 대체로 상실이나 이별 등의 형태로 보내거나 내놓아야 하는 일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였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족한 것도 버려야 할 것도 많고 많지만 '나의 현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욕망을 부침없이 구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겠다.' 정도의 문장을 길어 올렸어요. 구구절절 죄송하기도 하고, 굳이 뭘 이런 걸 이렇게 자세히 쓰는 거야? 라고 스스로도 생각하면서 마무리 지어보자면, 혹시나(장르가 다를 순 있지만) 비슷한 과정을 겪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도움이 되느냐 하면 아마 아닐 텐데 (직접 통

과하셔야 해요 ^^) 연락 주시면 술이라도 한 잔 살게요. 가끔은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생판 낯선 사람이 더 말귀를 잘 알아듣는 때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

그대 혹은 당신이,  
어디선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언젠가는 있어야 할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

\* '어디선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는 히가시노게이코의 소설에 나온 문장입니다.

[고병권의 비마이너]

##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

### 고병권

말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책을 써왔으며,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 1.

비평가 발터 벤야민의 『사유 이미지』에는 제목이 동일한 두 편의 글이 있다.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 (Einmal ist keinmal)'. 그는 이 제목으로 돈 주앙과 트로츠키에 대해 토막글을 한 편씩 썼다.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목 그대로다.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 주앙과 트로츠키 모두 이 진리를 실천한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연애에서 그랬고, 또 한 사람은 혁명에서 그랬다.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은 '단 한 번이면 된다'는 말과 대립한다. '단 한 번이면 된다'는 말은 노름꾼의 말이다. 패만 한 번 맞아떨어지면, 숫자 하나만 걸리면,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 꼭 돈이 아니더라도 노름꾼은 곳곳에 있다. 전세를 역전시킬 단 한 방을 기대하며 손을 크게 휘두르는 권투 선수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되찾을 혁명을 기대하며 모험적 행동에 뛰어드는 혁명가도 그렇다.

그렇게 해서는 설령 비슷한 행운을 잡는다 해도 구

원이나 해방에 이르지 못한다. 오히려 로또 당첨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처럼 되기 쉽다. 벤야민은 이것을 글 쓰기에 비유했다. 멋진 구절을 떠올려 놓고는 바로 그 구절 때문에 글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구절이 너무 멋져서 다음에 이를 구절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 차라리 그 구절을 버리면 수월할 텐데 너무 아까워서 놓지를 못한다. 그러나 놓지 못하는 것은 붙잡힌 것과 같다. 황금으로 만든 족쇄라고 해서 족쇄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는 멋진 구절을 떠올리는 데 성공했으나 그것이 다음의 성공을 막았다는 점에서 아주 나쁜 성공을 거둔 셈이다.

물론 '단 한 번이면 된다'고 말했다고 해서 노름꾼이 노름을 한 판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만화가 허영만의 작품 『48+1』에서처럼 그는 마음속 화투 한 장이 나올 때까지 노름을 멈출 수 없다. 아마도 그 한 장은 평생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평생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생 마음에서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저 블랙홀처럼 노름꾼을 계속해서 빨아들일 뿐이다. 노름꾼은 상황을

종료시킬 한 방을 꿈꾸지만 그 꿈 때문에 나쁜 상황은 종료되지 않는다.

노름의 이런 생리와 대비되는 것이 노동이다. 한 판에 대한 꿈으로 노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노동을 할 수는 없다. 매일의 노동을, 한 방을 기대하며 마구잡이로 주먹을 내지르는 권투선수처럼 할 수는 없다(그런 사람은 권투 선수로서도 수명이 짧을 것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안다. 한 번하고 말 일이 아니라면 말이다.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 벤야민에 따르면 이 말이 담고 있는 지혜를 파고 들어가는 데 성공한 사람이 트로츠키다.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영구 혁명’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트로츠키의 영구 혁명은 독특한 반복의 구조를 하고 있다. 그에게 혁명은 독립적이지도 않고 단계적이지도 않다. 한 혁명을 수행한 후에 그 다음 혁명에 도전하는 식이 아니다. 그는 반대로 접근했다. 이상한 말이지만, 다음 혁명이 먼저다. 미래 혁명을 추구하는 속에서만 현재 혁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트로츠키의 영구 혁명은 시간적으로는 연속 혁명이 된다. 당시 러시아는 사회주의는커녕 자본주의에도 이르지 못한 봉건적 사회였다. 이런 사회에서 혁명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계론적으로 접근한다면 일단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트로츠키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 속에서만 프롤레타리아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선사하는 권리들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미래 혁명이 현재 혁명을 끌고 가는 구조인 것이다.

시간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그렇다. 현재와 미래가 맺는 관계는 일국과 세계가 맺는 관계와 같다. 이 경우 영구 혁명은 국제 혁명이 된다. 혁명이 러

시아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해도 그 성패는 다음에 국제 혁명이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 혁명이 현재 혁명을 구원하듯 국제 혁명이 일국 혁명을 구원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혁명가는 미래 혁명의 추구 속에서 현재 혁명을 수행하고, 국제 혁명의 추구 속에서 일국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

요컨대 다음번이 없는 한 번은 의미가 없다. 도래하는 혁명이 없을 때 현재의 혁명은 혁명이 아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표현을 빌리자면, 현재의 혁명은 항상 “다가올 혁명극의 제1막”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50년 3월 공산주의자동맹 회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이 표현을 썼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호소문의 끝을 이렇게 맺었다. “노동자들의 전투 구호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영구적인 혁명 Die Revolution in Permanenz”).

## 2.

그런데 내가 영구 혁명에 대한 탁월한 해설자로 벤야민을 끌어들이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을 말하기 위해서다. 앞서도 말했지만 벤야민은 트로츠키에 대한 자신의 언급이 영구 혁명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은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옳음을 입증한다. 다만 아무도 이 지혜가 뿌리내린, 실천과 실행의 토대를 뚫고 들어가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트로츠키가 이 일을 해냈는데, 아버지가 들판에서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적은 몇 개의 문장을 통해서다.”

벤야민이 트로츠키한테서 감탄한 것은 영구 혁명의 사유나 논리가 아니다. 트로츠키의 성공은 그 사유의 이미지, 그것도 실천적인 이미지를 제시한 것에 있다. 그런데 벤야민은 그것을 의외의 장소에서 찾았다(이것이 내가 벤야민한테 감탄하는 지점이다). 그것은 트로

츠키가 어린 시절에 본 아버지의 낫질하던 모습이다.

내가 이것을 ‘의외의 장소’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이것이 트로츠키가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기 훨씬 전인 아주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는 점에 서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통상 혁명의 주력군으로 묘사하는 도시 노동자가 아니라 시골 농민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벤야민은 트로츠키의 영구 혁명의 실천적 이미지를 나이든 농부의 낫질에서 본 것이다.

트로츠키가 쓴 자서전의 내용은 대강 이렇다. 열 살이 되던 해에 그는 고향 야노프카를 떠나 도시인 오테사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는 첫 여름 방학 때 시골 집에 내려왔다. 어린 마음에 시골 사람들에게 좀 으스스 대고 싶었던 것 같다. 그는 낫쇠 버클이 달린 가죽 벨트를 차고 빛나는 노란 배지가 달린 흰 모자를 쓰고서 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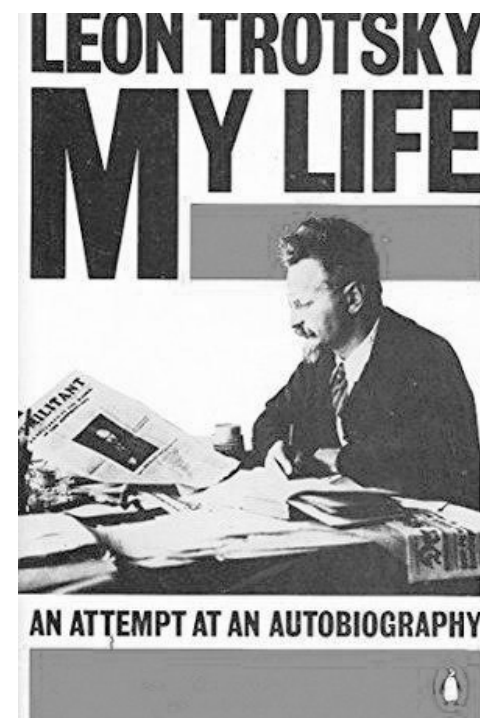
을 부린 채 아버지를 따라 들판에 나갔다. 들판에서는 허름한 옷차림의 일꾼들이 밀을 베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들의 일하는 모습이 시원찮아 보였는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밀의 상태나 한 번 보겠다고 낫을 빌렸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아버지를 지켜봤다. 아버지는 단순하고 편안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시작할 준비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발걸음 또한 더 나은 낫질 장소를 찾기도 하는 것처럼 살살 살피가면서 가볍게 내딛었다. 아버지의 낫 또한 단순하게 움직였고, 아무런 잘난 척함 없이, 심지어 확신에 차 있지도 않은 채—혹은 그렇게 보였다—움직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밀의 맨 아래쪽을 아주 균일하게 베어나갔으며, 낫으로 벤 이삭들을 왼편에서 돌고 있는 벨트로 재빨리 옮겼다.”(『나의 생애』, 박광순 옮김, 범우사, 2001, 152쪽, 번역 수정).

벤야민은 여기서 “매일 매번 낫을 휘두를 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법을 배운 노련한 자의 방식을 보게 된다”고 썼다.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혁명의 진실을 실천하는 노련한 혁명가의 이미지를 본 것이다. 항상 새로 시작하는 법을 아는 노련한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한 번에 특별한 힘을 쓰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일도 언제나처럼 처리한다. 아무런 과장 없이, 살살 살피가면서 그렇게 처리한다. 그리고 이미 잘라낸 것, 이미 이룩한 것을 오래 쥐지 않고 재빨리 한쪽으로 치워 놓는다. 다시 벤야민을 인용하자면, “그러한 손들만이 가장 손쉬운 일들을 조심스럽게 처리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도 노는 듯이 해치울 줄 안다.”

## 3.

트로츠키가 이때의 기억을 영구혁명과 관련지은 적은 없다. 자서전을 쓰며 어린 시절의 기억 한 가지를 길



어 올린 것뿐이다. 물론 이 기억을 떠올린 곳에 이렇게 적어두기는 했다. “시골 생활의 많은 것들이 이윽고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인생의 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런저런 작은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그것들이 종종 나를 크게 도와주곤 했다.”(『나의 생애』, 148쪽)

사실 아버지의 낫질이 나중에 영구 혁명을 떠올리던 때에 되살아나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는 알 수도 없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아버지의 낫질은 그가 명시적으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해방을 염원하며 계속해서 싸워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실천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비장하게 외칠 필요는 없다. 몸에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일을 하는 듯 마는 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발을 내딛을 때는 살살 살피며 가볍게 딛을 것. 낫을 돌릴 때는 부드럽게, 벨 때는 단호하게, 벨 다음에는 재빨리 옆으로 치우고 다음 자리로 이동할 것. 이것이 노련하고 원숙한 혁명가의 모습이다.

\*덧붙여, 아버지의 낫질은 이렇게 끝나지만 실은 이야기가 조금 더 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린 트로츠키가 낫질을 하겠다며 나섰다. 일꾼 한 사람이 요령을 알려주었다. “애야 발뒤꿈치로 딛고서 베야 한다. 발가락 쪽은 힘을 빼고 그냥 뒤. 발가락을 누르면 안 돼.” (참고로 이 낫은 우리가 쓰는 작은 낫과는 다르게 생겼고 쓰는 법도 다르다.) 하지만 어린 트로츠키는 흥분해서 자기 발뒤꿈치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도 몰랐다. 낫을 세 번쯤 휘둘렀을 때 힘을 주지 말라고 했던 발가락은 이미 땅 깊숙이 박혀 들어갔다. “아이고 맙소사!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가는 낫을 전혀 쓸 수 없게 된다구. 아무래도 아버지에게 좀 더 배워야겠구나.” 일꾼에게 가벼운 핀잔을 듣고 창피했던 트로츠키는 황급히 밀밭을 빠져나왔다. 그때 “배지가 달린 모자 밑으로 땀

이 줄줄 흘러내렸다.” 옷을 멋지게 차려 입고 낫을 호기롭게 돌렸지만, 발에 힘이 너무 들어갔고 심지어 흥분해서 자신이 어디를 딛고 있는지도 몰랐으니, 세 번은 고사하고 한 번의 낫질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차라리 그 구절을 버리면 수월할 텐데  
너무 아까워서 놓지를 못한다.  
그러나 놓지 못하는 것은  
불잡힌 것과 같다.  
황금으로 만든 족쇄라고 해서  
족쇄가 아닌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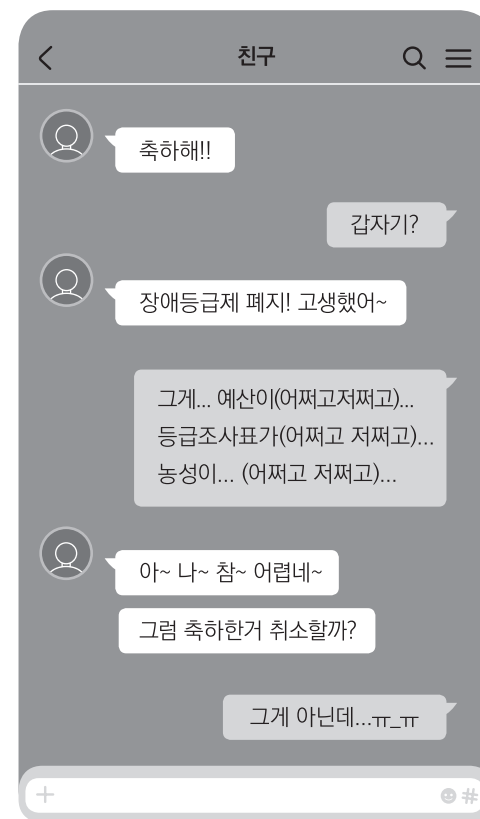
그는 멋진 구절을 떠올리는 데  
성공했으나 그것이 다음의 성공을  
막았다는 점에서  
아주 나쁜 성공을 거둔 셈이다.

[장판 핫이슈]

## 장애등급제 폐지가 "가짜"라던데 진짜인가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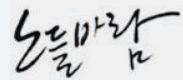
기획 노들 편집위원회 진행·정리 조상필



어느 날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서 축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반쪽짜리 “가짜”이며, 어쩌면 사기행각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구의 축하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 어느 토론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비장애인 주도해서 만든 것이다’, ‘등급이 없어져서 내 혜택이 사라진다’ 등 여러 주장과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큰 변화에 어쩌면 당연히 생겨나는 오해와 추측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들 편집위원회에서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에 얽혀있는 의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 노들 편집위원회

수 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  
(경 유)  
제 목 장애등급제 폐지에 얽힌 오해와 질문에 대한 답변 요청

1.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노들 편집위원회는 (사)노란들판,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 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6개 단위가 모여 분기별 소식지를 발간하는 기구입니다.
3.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오해와 가짜뉴스들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4. 노들 편집위원회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얽혀 있는 오해와 질문들을 모아 팩트체크를 하고 2019년 가을호에 담으려 합니다.
5. 이에 노들 편집위원회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얽힌 오해와 질문 9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답변과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장애등급제 폐지에 얽힌 오해와 질문 1부. 끝.

답 당 : 상필 시 행 : 190814  
협조자 : 현수 접 수 (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 전화 : 02-766-9101 / 전송 : 02-2179-9108  
전자우편 : nodeul@daum.net / 홈페이지 : http://nodl.or.kr

### 장애등급제 폐지에 얽힌

#### 9가지 오해와 질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 회신

#### 1.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 하는데 축하할 일 아닌가요?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마냥 축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고 문재인정부가 자평하는 것처럼, 31년간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 그 자체였던 장애등급제에 변화가 만들어진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걸맞게 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좋아진 것은 아직은 거의 없기에, 시작에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의 많은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2.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우선 지난 7월부터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면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기존 1~3등급인 장애인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 기존 4~6등급인 장애인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바뀌게 되고, 장애정도심사를 받거나 또는 복지카드를 분실할 경우 새로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활동지원’등 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에서 등급제한이 없어져 등록장애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제도이자 만족도가 높은 장애인활동지원에서 신청자격상 등급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7월부터 도입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여전히 의학적 관점의 문항들로 대부분 채워

져 있지만, 서비스 목적에 따른 서비스 필요도를 심사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한정된 예산에서 장애인을 끼워 맞추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3. 1~6급까지 장애등급이 “정도가 심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뀌었다는데 더 차별적인 구분 아닌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숫자등급은 장애등급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가치판단의 여지가 적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이라는 표현은 누가 보더라도 차별적인 가치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경증’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표현이 무엇이건 간에 이 문제는 ‘등록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장애정도를 입증해야만 하는 ‘감면/할인제도’등의 제도가 유지되는 한 차별적 낙인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 4. 그동안 등급에 따라 받아왔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급’이 ‘정도’로 바뀐 가장 큰 이유가 기존 ‘감면/할인제도’들 대부분이 ‘1~3급/4~6급’으로 나뉘어져 있었기에, 기존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기존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고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혜택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5. 장애 정도 별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야 본인에게 더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등급이 사라지면 구분이 없어져서 오히려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 중 하나는 의학적 손상의 절대적 기준(장애등급) 대신에 복지



서비스별로 필요한 사람을 판정하는 판정체계를 도입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판정 따로, 복지서비스 신청 따로,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가 여러 번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판정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전체적인 예산 확대 및 장애유형별·영역별 필요한 서비스가 도입 되고 양적으로 확대된다면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6. 장애등급제 있을 때도 장애인들은 혜택이 많던데 장애인 복지예산은 이미 충분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률 과 실업률 모두 2배 이상 좋지 않으며,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가구소득도 2배 가량 낮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예산은 약 2조9천억원인데 이중에 장애인 개인별 지원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및 주간활동지원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매우 낮습니다.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OECD국가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예산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하게 수급자격을 제한해왔던 장애등급제가 있어서였고, 예산확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7. 장애등급제 폐지는 비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들이 주도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2010년이었는데요. 당시 장애등급심사 본 사업이 실시되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수급받던 1급 장애인들이 심사 결과 등급이 조정될 경우 서비스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즉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장애등급제한으로 인해 신청자격조차 갖지 못 하는 문제 때문에 본격화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8. 진짜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선 장애인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려면 현재 2조 9천억원에서 8조원까지 예산이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예산이 확대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가 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만큼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보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 폐지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고, 정부도 강조하듯이 “31년만의 장애인 정책 변화”이니 그 변화에 걸맞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낡은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함으

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9. 진짜 폐지를 위해서 함께 활동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2년까지 OECD 평균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등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SNS를 통해 대중집회 등 행사가 공지되니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오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SNS로 함께 해주셔도 좋고, 청와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

셔도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장애인 당사자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를 잘 모르는 비장애인에게도 이 문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을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계속 눈여겨 봐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연대의 시작이 될 것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을 하는 모든 이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 석암투쟁 10년 기억 기록

석암비대위, 노들, 발바닥 멤버들의 이야기

‘2009 임소연’ 임소연에게 이야기를 청하자, 자신이 2009년에 사용한 노트를 들고 왔다. 소연은 매년 다이어리를 만든다. 잃어버릴 것에 대비해 수첩을 주문 자는 반드시 연락해달라는 메모도 써둔다. 소연의 2009년 다이어리에는, 지금으로써 반가운 사람 이름이 가득했다. 언제 누가 농성장을 지킬지, 활동지원을 누가 할지, 운전자가 누구인지, 손으로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소연의 다이어리가 유물처럼 느껴졌다.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나고 2019년이 되어, 그 당시 이야기를 나누어보기로 했다. 덩치가 크고, 연결된 사람이 많은 일이었다. 저마다 한 일이 많았고, 사건의 연속이었다. 열심히 싸웠고, 새 삶을 시작한 이들이 있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여러 사람을 한 자리에 불러모았다. 질문을 많이 던진 탓이기도 하겠지만, 이야기가 길게 길게 이어졌다. 귀중한 이야기기므로, 시간 내어 읽어주시길 바란다.



기획 노들 편집위원회    녹취 조정민    진행/정리 김유미    편집 오하나

도움 박경석 정성현    대담 일시 2019년 8월 7일 오후 4시, 장소 노들야학 교실 5

### 대담 참가자

조상필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조사랑 노들장애인야학

임소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은별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림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노들장애인야학

정종훈 노들장애인야학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유미 노들장애인야학

### 이야기 순서

1. 투쟁의 시작, 베데스다 요양원과 탈시설 운동 이야기
2. 당시 소속과 역할,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3. 어쩌다 이 일에 연루되었나?
4. 기억에 남는 투쟁 혹은 사건
5. 힘들었던 기억, 왜 그랬을까. 마음에 드는 한 장면.
6. 석암 멤버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7. 김포에선 어떤 일이 있었나. 이후의 운동, 이어진 운동
8.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어떨지. 그 투쟁이 나에게 미친 영향



## 투쟁의 시작 석암 베데스다 요양원과 탈시설 운동 이야기

**유미** 석암 탈시설 투쟁 과정에서 마로니에 공원 투쟁이 노들야학 앞에서 진행되었고, 중요한 운동 사건이었어요. 그때 노들에서도 많은 일을 같이하며 고생하기도 했고. 그래서 석암투쟁을 노들 사람들의 목소리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투쟁 시작부터 거슬러올라가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이 투쟁의 시작을 언제로 보는 게 좋을까요.

**동립** 싸움의 시작은 2008년도부터일 겁니다. 당시만 해도 장애 수당이 있었어요. 내 친구 하나가 티비 보다가 뉴스에 장애수당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모른 척해. 그래서 친구가 보건복지부에 연락해 답변이 왔는데, 본인한테가 아니라 시설 원장한테 온 거야. 그래서 아침에 불려갔어. “왜 이런 걸 보냈냐”고.

그날 아침에 거진 9시가 다 됐는데, 친구가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다 “야 너네 내일 아침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 10명을 사무실로 부르는 거야. 통장을 하나씩 쥐서 보니까 일인당 50만원씩 들어가 있었어. 친구가 그때부터 비리를 더 캐



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 알리냐? 발바닥[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 알렸는데, 완전히 007작전이었어. 둘만 알지 아무도 몰랐어. 이 사람이 발바닥에 협조해달라고 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온 거야. 그래서 알았다 내가 뭐든지 도와주겠다 했어. 진수형, 윤남이 형 그때 다 불러 도와주겠다고 해서 시작했어.

지금은 마로니에 8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시설 내부에서 동트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됐어. 근데 차츰 한 사람씩 떨어져나갔어. 2009년도 2월에 석암재단 이사장, 당시에 원장하고 마로니에 8인이 회의를 했어요. 족벌체제가 아니라 공익 이사를 세워놓으라고. 처음에 한두 번 만날 때 금방 해줄 것같이 이야기가 잘 됐어, 근데 세 번째 만날 때는 그냥 듣고만 있고, 네 번째 만날 때는 회의 시작하려고 할 때 원장이 “나 이거 못해.” 그러는 거야. 그때 비리를 캐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했어. 이게 쉽지만은 않으니깐 각오해야 한다, 안 되면 서울시청에 텐트를 깔 거다, 그래도 할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를 다 하니 사람들이 “야 이런 시설에 있으면 힘드니까 우리가 전부 나가자” 그렇게 합의를 본 거야.

1년이든 10년이든,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이 다 자기 일이라고 나갔지. 당시 서울시청에 올 때만 해도 30~40명 정도였는데, 우리가 서울시 투쟁할 때 원장이 박\*\*을 꼬신 거야. 원래 간병인이었는데, 원장이 사무국장으로 와달라고 제안을 한 거야. 그 사람 오고 나서 비대위에 진수, 나, 현수 10명 정도 남았지. 서울시청에서 잠자고 들어오고. 그다음부터는 8명이 다 같이 서울시청에 왔다갔다 서울시 출퇴근 투쟁을 했지. 그때 아버님(정종훈)이 젤 힘들었을 거야. 매일 차를 가져와서 우리를 데려다줬으니까.

**소연** 종훈님이 일등공신이지. 새벽부터 가서.

**중훈** 나 힘 안 들었는데? 하하하. 처음 김포 투쟁



할 때는 시설비리 투쟁이었고, 나오면서 탈시설로 결의되었지.

**소연** 석암투쟁이 앞으로 전무후무할 거야. 당사자가 내부에서 스스로 조직해 시설비리 투쟁을 했으니까. 시설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당사자들이 권력을 잡기 어려운 구조인데, 그 힘든 과정에서 스스로 시설비리 척결 투쟁에서 탈시설까지 왔다는 것은, 혁명적 투쟁이라고 봐요. 그때 석암 내부에서 당사자들은 결의에 찼던 거 같고. 서울시랑 우리가 굉장히 분쟁이 심했어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운동하는 단체로서 탈시설을 위해 구체적 권리로 뭘 설정하고 지자체에 어떤 요구를 할지 고민했죠. 서울시와 공방하며 탈시설 지원을 하라 요구하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바로 치고 나왔어요. 누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냐? 도대체 몇 명이나? 그래서 그건 서울시가 조사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

면서 2007년 말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을 쫓아다니면서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시에 욕구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죠. 그렇게 해서 2008년 서울시가 탈시설 욕구조사를 전국 최초로 하게 됐어요. 서울시 거주 시설 생활인 3400명 중에서, 나랑 미소가 1000명을 만나서 석암 베데스다 요양원, 시설비리 문제가 있었던 은혜, 문혜 요양원도 다 조사하게 됐어요.

그때 조직한 비장애 활동가들이나 장애 활동가들이 많아요. 이전에 시설 인권침해 조사는 계속했지만 욕구 조사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서울시랑 엄청난 공방을 일으키면서 집어넣은 문항이 있죠. “시설에서 나오고 싶으십니까?”

**중훈** 2007년도에 내가 김포 석암 시설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시설 사무국장, 원장이 시설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앞봤어. 막말하고. 그러다가 투쟁하는 쪽에서 세계 나가고, 나도 매일 사무국장, 원장

하고 싸우다시피 하면서 드나들었어요. 거기 마당에 가서 세차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마당도 쓸어주고 별 걸 다했어요.

**소연**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서울시청으로 출퇴근 하면서 투쟁했어요.

한편으로는 노들에서 처음으로 '탈시설 학교'를 만들었죠. 그때 담당자가 사랑이었고. 지금 말하면 문해교육이랑 정신교육 같은 운동 교육을 한 거죠.

노들 최초의 낮수업,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어요. 그때 시청에 출퇴근 투쟁하며 공부도 해야 하나까 이름을 '탈시설 학교'로 정한 거고. 그 인원의 상당수가 이 학교를 하면서 다지기를 한 거죠. 활동의 결론을 당사자들이 '시설비가 없어져도 좋은 시설은 없다'라고 정리를 하신 거지.

**중훈** 혼자서는 절대 못 해. 하고 싶어도 옆에서 단



체들이 도와주고 해야 하지. 발바닥, 노들이 옆에서 끌어서 지금까지 왔지.

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빨리 좋은 환경이 될 줄 처음엔 생각도 못 했어.

**상필** 발바닥을 어떻게 알았다? 시설에 있으면서.

**동림** 한규선 형이 시설에 있으면서 인터넷을 많이 뒤져 시민단체를 찾은 거야. 007작전같이 시작했어.

**소연** 규선형이 해서 알기도 했고, 그때 노조 통해서 연결된 것도 있었지. 양방향으로.

**중훈** 수연이랑 내가 야학에 다녔잖아요. 그때는 김포 한번 갔다 오면 10만원 들었어. 교장이 10만원씩 줄 테니까 김포를 왔다갔다 해달라고 했어. 나는 통장 보지도 않고 그냥 다녔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나? 교장이 이제 김포를 그냥 매일 왔다갔다 해달래. 근데 발바닥이 돈이 없으니 한 달 60만원 줄 테니까 해달래. 나는 그렇게 일을 시작했지. 나도 발바닥을 물렸는데, 그때 발바닥 임소연 김정하팀을 알게 됐지.

**소연** 탈시설운동을 통한 전환점을 크게 두 가지로 잡는데. 당사자들이 '좋은 시설은 없다'고 천명한 것.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결심 같아. 지금은 법으로도 한 달 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서 노숙농성을 할까. 이게 다 싸워서 만든 거지. 그때는 활동지원 받으려면 나와서 3개월씩 걸리고 그랬어.

집도 없지, 활보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당사자가 결심을 해줬기 때문에 투쟁이 가능했어요. 그다음 전환점이 탈시설 욕구조사를 한 것이예요.

지금은 당연히 탈시설 뒤에 지원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질문하는데, 그때만 해도 '시설을 나오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이 획기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주면 나가시겠습니까' 단서를 단 질문을 했고. 이 단서가 '시설에서 나올 때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지. 집, 돈, 활동지원... 탈시설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통계로 받아내고, 2009년 6월 4일 나올 때 당사자의 지와 탈시설 권리로 요구안을 만드는 빅데이터가 되었어요. 나는 아직도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결심으로 나오려고 했을까? 지금과 비교하면, 만 65세 연령 제한된 분이 단식 농성하면서 '나 죽을 때까지 활동보조 문제 해결할 거야' 하고 나온 거랑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림** 우리가 비리가 터졌을 때, 나하고 인현이, 진수형, 정용형이 그랬어. 이런 비리가 있는데도 이 시설에서 살 거냐고.

**상필** 그럼 다른 시설로 가지지 왜... (웃음)

**동림** 죽으면 죽고, 나가면 나갔지 이런 시설에서는 살 수 없다고 했지. 그때 김정하가, 2009년 5월에 왔어요. 우리 8명 다 불러놓고, 나갈래? 물었을 때 단 1초도 안 걸렸어요. 죽든 살든 여기서 나가자고, 이런 비리시설에는 못 있는다고. 그래서 6월 4일에 나오게 되었어. 정용형 돌아가셨지만, 그 형도 처음에 참석 안 하려 그러다 진수형이 나가니까 같이 나온 거야.

**중훈** 8명이니깐, 뒤에 휠체어 탄 네 사람을 태웠어. 앞에는 용납이하고 기속 두 명 타고. 휠체어 밑에 발판을 다 떼고, 앞에서부터 끼어서 네 대가 탔어.

**소연** 우리 그 노랑 봉봉이 차 있잖아. 5227. 그 차 이야기를 꼭 써줘야 해. 아버님이 그 봉봉이 없었으면 이 일도 못 했을 거야. 그 차가 김포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폐차시켰지.

**중훈** 그때 2년 동안은 집회가 얼마나 많은지 차에서 자고, 내가 살다시피 했다.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한 편이 되어서 서로 정이 들어 더 똘똘 뭉쳤지.

**소연** 그때 활동가들이 너무 바쁜 데다, 석암 멤버들이 서로 엄청 싸우셨어. 그러면 아버님이 그분들을 차에 태워 바람 쐬고 오면서 화해시키고 일을 많이 하셨지. 당사자들이 버티게끔 역할을 잘해주셨지.

## 어쩌다 이 일에 연루되었나? 당시 소속과 역할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미** 자연스럽게 정중훈 활동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그때 어떻게 싸움에 결합하게 되었는지?

**상필** 저는 그때 장애인교육연대 소속에 장애인부모연대, 전장연 선전국에서도 일했어요. 마로니에 투쟁이랑 탈시설에 직접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고, 야간 사수 때 한 번씩 갔어요. 기억나는 건 아버님 따라서 운전했던 거.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했기 때문에 운전이 필요했죠.

**중훈** 발리 투쟁 장소를 가야 했기 때문에, 남의 차 빌려서까지 교대로 사람을 나르고 했죠.

**상필** 저는 그때 운전하면서 형님들하고 잡담도, 노래도 많이 한 것 같고 피곤할 만도 한데 그날 농성에

서 뭐했는지 이야기하고. 생각해보면 나갈 때 상기돼서 목소리 높고 그랬는데, 들어갈 땐 힘들어서 더 그럴것지만 표정이 어두웠어. 특히 정용형이 불만이 많았지. 술 얘기 항상 하고. 투쟁가도 많이 불렀고, 트로트도 많이 부르고. 형들 따라서 건물 안에도 가봤어요. 처음엔 노조가 호의적이다 했는데, 직원들이 넘 쌀쌀하게 대하고 툃툃거리서 기분이 좀 그랬어요.

형들도 투쟁할 때는 큰소리 냈지만 시설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공장[사회적기업 노란 들뜰]에서 디자이너하고 있습니다.

**사랑** 나는 당시 노들야학 소속. 탈시설 학교 1, 2기가 있는데, 2기 담당이었어요. 은전언니가 하던 역할을 내가 받으며 일하게 됐어요. 야학이 유리빌딩 오기 전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천막 치고 농성했잖아요. 그 즈음 내가 상근을 결의하며 들어와서, 야학이 망하는 줄 알고 천막을 엄청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다 여기 공

간에 왔는데, 뭔가 허탈했어요. 석암 분들이 오기 전에 저는 야학에 좀 침체가 왔다고 느꼈어요. 공간도 적응이 안 되고.

**현수** 정립회관에 대한 괜한 향수 같은 게 있었죠. 그 밑의 포장마차도 그렇고.

**사랑** 그러다 탈시설 학교를 했는데, 이 분들이 예전 노들야학 학생들보다 더한 거야. 매일 차를 타고 도와서 다시 차를 타고 짐짝처럼 들어가는 게, 마음 한켠이... 내가 처음 야학에 와 학생들 현실을 봤을 때 그런 느낌. 탈시설 학교 하면서 재밌기도 했지. 어디 놀러도 가고 술도 담고. 한 명, 한 명 캐릭터가 분명해서 만나면 재밌었어. 그러다 소연언니가 이 형들이 마로니에 공원에 나올 거란 얘길 해서 언제 나오냐고 계속 물어봤던 일.

그렇게 처음 나와서 마로니에 공원에다 트럭의 짐을 내리며 집에다 풍선 달고 했던 날이 기억이 많이 나. 평원재 담당 일도 했고. 지금 저는 고시생이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프리웰 이사네요. 프리웰 이사 중에 제가 제일 오래 했더라고요. 임기가 다 끝나가긴 하지만.

**소연** 그때 사랑이가 열정이 넘쳐흘렀어. 당사자들을 만나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여기 자리잡는 데 공을 세운 한 명이지. 우리가 어디로 나올지 이야기할 때, 마로니에 공원을 선택한 건 여기에 노들야학과 노들센터가 있었기 때문이지. 야학, 센터 같은 당사자 공간. 노들이 물적 토대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밤새 일할 수 있는 사무실도 되고. 주거복지사업도 했지. 다른 지역 탈시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모델링하는 사업을 공동모금회에 제안해서 했고 그때 담당자가 미소랑 사랑이었지.

**현수** 저는 노들센터 사무국장이었어요. 지금은 전

장연 사무총장 직무대행이고요. 당시 이곳에 야학이랑 센터가 있었고, 그들이 온 거죠. 그때 노들센터 활동보조 관련해서 코디 역할을 지명이 하고, 제가 총괄을 했어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상윤이 형 일. 활동보조 신청한 다른 사람들은 등급을 잘 받아 시간도 잘 받았는데, 상윤이 형은 최고 등급이 안 돼 농성 끝날 때까지 시간이 잘 안 나와 그게 가장 속상했어요. 그때 활동보조 배치 역할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박종필 감독 <시설장 애인의 역습>에서 활동보조 관련한 인터뷰도 하고 그랬네요.

**유미** 은별은 언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은별**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라 없었어요. 꽤 오랫동안 몰랐고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김포 가면서 사건 개요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던 것 같아요. 2012년 노들야학 교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연** 김포센터는 석암센터이기도 한데, 그 역사를 이야기할 필요도 있어요. 2012년이던 이때 갈홍식도 활동했지. 활보를 많이 하고. 활보 하면 할 얘기가 정말 많지. 김진수 180시간, 김동림 180시간, 수첩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는 활동보조 180시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라.

**현수** 그때 사랑이가 역할을 크게 했지.

**사랑** 내가 활보 시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지.(웃음) 활동보조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자주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고 그랬어.



**소연** 또 중요했던 곳이 평원재. 평원재 없으면 안 됐을 거야. 우리가 나와서 싸웠던 것 중 하나가 마로니에 공원에 주소지를 받는 일이었어. 우리나라 서비스가 신청제이고, 개인이 등록된 주소지를 가져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마로니에 공원은 주소지로 인정이 안 돼 서비스 신청도 못 하는 상황이었지. 버티고 버티다가 임시 주소지를 노들에서 평원재로 옮겨 결국 서비스를 받게 됐어. 안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이니 활동지원이니 하나도 못 받았을 거야. 이때 전부 다 긴급으로 서비스 받은 거지.

**중훈** 갑자기 호텔로 들어간 거였어.

**소연** 그래도 형님들이 평원재에서 못 자겠다고, 밖에서 자겠다고 했지. 그래서 돌아가며 지켰고 또 너무 더우면 들어가 자고 그렇게 나눠서 지냈지.



**유미** 이때 독립진료소도 만들었다.

**소연** 독립진료소 처음 왔을 때, 표가 여기 (수첩에) 다 있어. 누구는 어땠고 건강상태 내용이 있어.

**사랑** 그때 형들이 다 아팠어. 동림이형은 눈이 안 좋았고 수술하고, 성호형도 경기하고 몸이 안 좋았지.

## 기억에 남는 투쟁 혹은 사건 힘들었던 기억. 마음에 드는 한 장면

**유미** 기억에 남는 이야기. 힘들었던 것도 좋고 맘에 드는 장면도 좋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주세요.

**현수** 저는 2008년도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하는데, 그때만 해도 시청 본청이 공사 중이라 광장에서 뭔가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3·26 때 같은데, 시청 광장에 천막을 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경찰이 막는데도 겨우 깔판을 깔고, 천막을 낮에는 걷고 밤에만 치는 시스템으로 합의를 봤죠. 밤에 우리가 야간 사수를 하고, 새벽이 되면 시청 공무원이 나와 천막을 걷어줘. 한 번은 비가 왔는데 새벽에 천막을 걷었는데 다들 너무 피곤해 비를 맞으면서 비닐을 덮은 채 그냥 잤어요. 그렇게 시청 앞에서 농성했던 게 기억나요. 석암투쟁, 하면 양천구청 투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2008년에 장할[장애민중연대현장활동]을 같이 했는데, 중간 일정으로 양천구청 기자회견에 결합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대규모로 이동하기 어려워 워서 장꼴을 잡았는데, 먼저 간 멤버들이 양천구청 로

비로 바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양천구청 경찰들이 난리가 났어요. 원래는 구청 못 들어오게 할 생각이었는데, 학생단이 먼저 들어가버렸으니까. 그리고 2009년 4·20 때 석암 형님들이 사발했던 게 기억 남는데, 그때 비택 중 하나로 자유로 점거가 있었어요. 왜 그런 기획이 나왔는지 좀 어이가 없었는데, 알아보니까 시설에서 나와서 '자유'로 가자, 그래서 자유로로 간 거였죠. 그리고 또 여기 마로니에 공원에 처음 농성을 틀었을 때 일인데. 공원 뒤쪽에서 무료급식을 했어요. 그때 형님들이 저걸로 저녁을 때우면 되겠다 해서 한 끼를 먹었는데, 다시는 안 먹겠다고. 그래서 공원에서 우리가 밥을 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동림** 그날 메뉴가 닭곰탕 같은 거였는데 진수형이 "야, 다시는 여기서 먹지 말자. 차라리 나가서 사먹자" 그랬어. 나 다니는 교회에서 와서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상필** 베데스다에서 나와 마로니에 공원에 동지 틀려고 할 때 얼마 안 되는 짐이 한켠에 쌓여 있던 게 기억나요. 여덟 명 짐이 트럭 한 대 정도.

**중훈** 진수형은 냉장고가 있었어.

**동림** 시설에 있을 때 진수형이 아침밥으로 찌개 끓여서 밥 먹으라고 여덟 명을 다 불렀어. 고기를 고추장에 재어서 저녁밥에 비벼서 해주고 그랬어. 그때는 나 갔다 와서 밥 먹는 게 진짜 꿀맛이었어. 서울시청 차 타고 갔다가 저녁에 오면 사람들은 다 자는데 진수형이 우리 오라 그래서 밥 남은 거 다 같이 먹고 그랬어.

**현수** 농성 투쟁하면서 기억 남는 게 오세훈 시청 공관 가는 길에 아스팔트에 누워 있던 거요. 경찰들이 일렬로 쭉 막아가지고 동림형이 앞에 올라가는데 휠체어에서 바닥에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날이 1박2일 투

쟁이었는데, 낮에는 배정학 동지가 연행되고, 밤에는 내가 연행되었어요. 롯데리아 앞에서 문화제하는데, 그때가 야간 집회를 못할 시기라 경찰이 계속 경고방송 하고 그랬어요. 엠프 옆에 있었는데 경찰들이 확 치고 들어와 본능적으로 발전기를 몸으로 지켰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나를 확 들어내 전화 부스 안에 가뒀다가 연행하려는 것을 \*형사가 빼줬었는데, 내가 눈치 없이 근처를 기웃거리다 다시 붙잡혔어요. 그렇게 연행돼서 이틀 다 채우고 나왔어요.

**유미** 나도 해화로타리에서 1박 2일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날 롯데리아 2층에 올라가 길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찍었는데, 모습이 진짜 이상했어요. 평소 지나다니던 길에 사람들이 침낭 깔고 진짜로 자는 거예요. 집 모양 선전물 같은 것도 있었고, 그날 밤이 기억나요.



2008 양천구청

**동림** 나는 양천구청 투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구급차가 왔다갔다 해서 뭔가 하니, 박길연 대표가 손가락이 찢어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기억 남는 건, 진수형하고 나하고 처음으로 서울시청 앞 계단에서 사람들한테 우리 선전물을 나눠줬던 일.

제일 힘들었던 건, 내가 힘이 써지 못해서 경찰들이 우리 비장애인들, 활동지원사들 연행해갔을 때. 그때가 젤 힘들었어.

**상필** 이 얘기는 형이 그때도 여러 번 했죠. <시설장애인의 역할> 영상에서 형이 휠체어에서 내려서 엄청 싸우며 경찰 방패를 막 때리는 게 나오는데, 그 모습이 이랑 이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그때 전단지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진짜 열심히 줬어요. 가는 사람들 따라가면서. 형은 그때 선전물 나눠줬던 게 왜 기억이 남는지?

**동림** 그때 내가 시청에서 처음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 농성하는데,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수형하고 정용이형하고 아침에 자는 모습 보니깐, 이게 얼마나 같지 모르지만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싸워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

**현수** 상윤이형도 몸에 전단지 얹어놓고 사람들한테 가져가라 하면서 엄청 노력했던 게 기억나요. 농성장이 마로니에 공원에 있어서 노들야학이랑 센터 상근자들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사무실 가는 길목이니 한번 들여다보고 인사하고 가야 하나, 일이 바쁘니 빨리 가야 하나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노들 사람들은 사무실에 있어도 괜히 마음에 짐을 안고 있는, 그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사랑** 나는 한 번도 경찰 연행을 당해본 적이 없었

는데, 탈시설 투쟁하면서 처음으로 겪어봤어요. 진영 언니가 싸울 때 보면 좀 무섭잖아. 엄청 잘 싸우고. 아무튼 그 언니 옆에 있다 괜히 채증돼서 많이 고생했던 게 생각나요.

**유미** 그때 사랑을 찾으러 형사가 우리집에 찾아왔어요. 사랑이가 당시 주거지가 불분명해서 우리집으로 주소를 해놨는데, 어느 날 집주인 아저씨랑 형사가 같이 문을 두드리면서 '조사랑 씨 여기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안 산다고 그랬어. 형사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사랑이가 움직이고 있는 흔들리는 사진을 보여줬어. 혐의도 경찰 폭력 행사 뭐 그런 무서운 내용이었어.



서울시장공관 앞에서 경찰 방패에 둘러싸인 김동림. 박종필 감독의 <시설장애인의 역습> 한 장면



**사랑** 서울시 오세훈 공관 앞에서 형들이 가슴에 '오세훈 시장 약속을 지켜라' 한 글자씩 붙이고 땀병에 다 누워 있었을 때, 나는 그날 유난히 상연이형이 눈에 보였어. 형이 작은 체구에 손을 못 쓰시고 발로만 다 하는 상태고. 그때는 전동도 아니고 수동휠체어로 누가 끌어줘야 다닐 수 있었는데, 형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시커먼 아스팔트 위에서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는 눈빛으로. 그날 형들의 얼굴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중훈** 내가 시설을 다니면서 보니까 중증들이 되게 많거든. 앞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탈시설하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진수랑 동림이가 불러 시설 안에 가보니까, 우리 수연이 같은 애들이 층층으로 누워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보고 눈물바람을 했어. 시설에서 선생님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중증들은 나오고 싶어도, 누가 데리고 나와야 나오는 거지. 내가 시설은 '누워 있으면 천장을 보고, 옆으로 돌면 산만 보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중증들은 언어 표현이 어렵지, 생각은 다 있는데 시설에 누워 있으니...

중증들은 시설이 없어지던가 해야 나와서 하늘도 쳐다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나오게 하던지 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빨리 되가고 있는 듯해요. 옛날에는 시설 원장이 이름 안 부르고 야! 하거나 욕하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말도 부드럽고, 누구누구씨 이렇게 불러주죠. 이런 걸 보면 장애인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단체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다고 생각해요.

**현수** 전 또 기억에 남는 게, 형님들이 평원재 들어간 뒤 가족분들을 초청해서 집들이를 한 거예요. 다들 장기간의 투쟁으로 지쳐 있었는데, 모처럼 형님들의 밝



혜화로터리 1박2일

은 모습을 봤던 날이었어요.

**사랑**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평원재 이종각 아저씨가 죽기 마지막 5년을 우리랑 함께한 거. 마지막 5년을 우리랑 함께했던 것이, 아저씨 인생에서 어떤 의미였을까. 아저씨와 사람들의 관계는 집주인, 이 사장이기도 하지만, 기옥언니가 명절이라고 찾아가서 양말 두 켤레를 주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진정하고 마음, 애정이 생겼던 거. 그런 마음이 좋았어요.

**상필** 동림이형이랑 마로니에 8인이 나와서 몸이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야? 끝까지 가보자 했지만 힘들어서 포기하고자 했던 적은 없었는지?

**동림** 없어. 나는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다른 사람도 아무도 없어. 나 눈 수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갔고 끝날 때도 갔었고. 근데 다들 그래. 그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때 같이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다고.

**상필** 변했네!

**동림** 한 살 두 살 나이가 먹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도 솔직히 결혼 안 했으면 활동을 더 했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전같은 못하고 있어요.

### 석암 멤버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김포에선 어떤 일이 있었나. 이후의 운동, 이어진 운동

**유미** '석암비대위[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잖아요. 활동을 계속하고 있나요?

**동림** 자조모임으로 계속하고 있고 지금은 열댓 명이에요. 김포센터 다니는 사람들이랑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이랑 같이 활동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그래요.

**유미** 그때 분들이 탈시설 이후 어떻게 지내는지, 이후 운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로 넘어가봅시다. 아까 소연언니가 김포센터는 석암센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동림** 당시는 김포에 센터가 없었어. 장콜도 전전날에 예약을 해야 탈 수가 있었고. 네 사람이 김포에다가 센터를 차리자고 처음엔 다들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나오기 얼마 전에 규선이가 내가 센터 할 테니깐 도와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어. 처음에 딱 세 사람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했고 그러다 또 이사를 했고.

**현수** 김포센터 만들었을 때 사실 노들에서도 박경석 선생님이 김포센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센터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자리를 못 잡고 약간 무기력한 상태가 나타나다보니 '김포센터를 보라, 저렇게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센터도 만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의 김포센터가 자리 잡고 성장하고, 야학까지 만들어 진수형님이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미** 지금도 향유의 집이나 김포 쪽 시설분들 탈시설 지원을 김포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은별** 예전에 용산행복센터랑 센터판이랑 해서 체험 사업을 3년 정도 했잖아요. 그때 자립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서울보다 김포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2016년도부터 김포 지역 국민임대 아파트를 신청하고 당첨돼서, 시설에서 바로 자립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향유의집에서 마로니에 8인을 포함해서 자립한 사람이 30명 정도, 생각보다 많이 나갔고, 지금은 발달장애인분들이랑 와상 호흡기장애인분들이 주로 계세요.

**유미** 김진수 형님은 올해 칠순을 맞았으니 60세에 자립을 한 건가요?

**은별** 그런 거죠. 2009년 60세에 자립을 한 거예요.

**사랑** 저는 형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고생했던



평원재 집들이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것들을 많이 보고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결혼한 분들도 많고, 진수형처럼 센터를 꾸려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상윤이형은 결과적으로 자기만의 투쟁 끝에 자기 보금자리와 부양의무 문제도 해결해서 수급비를 받고, 다른 야학에서 수업도 듣고 계시고. 여러 아쉬운 면도 많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자기가 투쟁해온 부분들을 해결하고 방향도 하고. 모든 게 해결됐다고 천국은 또 아니잖아. 헛헛한 일상들이 다 있는 거고. 그래서 노들만이, 투쟁만이 대안이고 자기 모든 것이던 삶에서 조금 벗어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괜찮은 것 같애. 그분들은 자기 역사가 몸 안에 기억으로 있어서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다 같이 움직이는 힘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누구나 삶에 있어서 쉬어가고 방향하고 그런 감정들에 힘들어서 잠깐 떠나 있는 시간들이 사람들마다 있고, 그런 기억과 역사가 나를 만드는 면이 다 있는 것 같애. 나는 형님들, 소문으로만 가끔 안부 들을 때마다 그 시

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들 잘 살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어떨지. 그 투쟁이 나에게 미친 영향

**유미** 조사랑은 그 투쟁을 같이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사랑**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활동하면서 야학교사로서 평원재 담당자로서. 그 안에서 형님들 말고도 다른 시설에서 나오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주거지원 사업하면서 20명 가까이 자



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법인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비리가 나타날까,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프리웰 이사회도 6년째 경험해보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생각이 들고. 독립진료소도 형님들 건강 때문에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점점 새로운 일들을 해보게 했고,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아. 사람의 삶이 마이너스였다가 새롭게 태어난 듯이 세상에 나와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그런 탈시설 경험들을 옆에서 지켜봐서.

옛날에 형님들이 처음 나왔을 때 수많은 활동가들이 하루하루 비버가면서 그런 힘으로 버텼잖아. 그런 힘을 노들이 가지고 있고. 노들약학 학생들이 시설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사도 활동가들도 그 이유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테고.

**유미** 아버님은 어떠세요? 이제는 인강원 노들 통학 차를 매일 운전하고 계시는데.

**중훈** 나는 우리 수연이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장애인들에게 가깝게 갈 수 있었어. 김포에서 동림이랑 차 타고 다니면서 진단 반 농담 반 삼아 '장가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장가 간 사람도 있는 것이고. 김포 쪽에서 일할 때 생각하면 꿈에도 생각 못 하게 빨리 좋아진 것 같고.

이게 당사자뿐 아니라 밑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남아서 연대도 같이하고, 그런 게 좋지 않냐. 근데 지금 보면 옛날보다 장애인 쪽이 해이해진 느낌이 든다. 옛날에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 울지 않는데 누가 젖을 주냐, 젖을 먹으려면 같이 가서 많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미** 은별은 현재 김포센터 활동가로서 이번 석암 10주년 보면서 어땠는지?

**은별** 저는 마로니에 8인보다 후발로 나온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동림이형 진수, 정용형 정도. 나머지 사람들은 석암 자조모임할 때 1년에 두세 번 정도 만났지. 오히려 양천구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왔지, 승배도 그렇고, 인형이 형, 규선은 따로 나왔고. 이런 사람들이 연어처럼 김포로 다시 돌아와 센터에 모여서 중요한 역할들을 다하고 있고.

진수형은 소장이라는 큰 역할을, 동림형, 규선형은 동료상담가로 이후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 자립 지원을 계속하고. 승배 같은 경우 센터 권익옹호 활동가로 있고. 가평 꽃동네나 신애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김포에 살고 있으면 석암 사람들이 지원해주고.

실제로 선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에 정용형 장례식 하면서 느낀 건데, 다 나이가 많고, 향유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도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로병사가 다 있어야 하는데, 지금 노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40대이니. 센터의 미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린이시절인 해맑은 마음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미래는 그곳이다.

**사랑** 미성년자면서 장애인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분들의 탈시설과 자립을 같이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우선으로 빨리 나와야 한다, 성인이 되기 전에.

**동림** 올해 인권교육 나갈 때 느낀 게 있어요. 처음 인권교육 시작할 때 내 인생은 맨 밑바닥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투쟁하면서 내가 올라갔다, 투쟁하면서 곡선이 끝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은 그나마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있다.

이것이 투쟁의 결과이고 나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리고 인권교육 가면 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게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 된다'라는

말을 많이 써먹어요. 차별받지 않고, 이 모든 사회가 장애인에게 맞춰지면 참 좋겠어요.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장애인들은 말도 안 들어줘요. 무시하니까 말 꺼내기도 겁나. 식당이나 어디나 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하고 싶어요.

**상필** 그때 같이했던 게 좋았고. 크게는 엄청난 시도들과 변화가 있던 거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이런 자리도 만들어지고.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너무 즐겁고 좋았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동림이형이 저 멀리서부터 "야~ 상필아" 하면서 반겨주는 게 좋죠. 사랑이 말처럼 그때 그렇게 박세게 한 만큼 이제 본인의 행복을 찾아 행복하게 살면 좋겠고, 다른 분들이 잘 안 보이곤 해도 힘들게 살았으니 편안해지면 좋겠어요.

지금의 투쟁은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만들면 되니까.



[노들은 사랑을 싣고]

## 석암투쟁 10년 그리고, 기욱과 용남의 이야기

명희

애쓰며 삽니다.

8/12(월) 기욱과 용남네 집에서 명희가 만났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직접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옮깁니다.



### 기욱의 이야기,

오랜만이야. 잘들 지내지? 학교 안 나간 지도 여기 이사오면서 멀어져서 그랬으니까 벌써 5년은 된 거지. 다들 어떻게 살아. 나는 많이 잊고 살고 있어. 그래도 올해 우리 투쟁 10년 되었다고 마로니에공원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했네. 다들 그대로야, 나만 늙었지 뭐.

그리고 지난달에 정용 장례(석암투쟁을 함께했던 8인 중 1명)가 있었잖아. 그런 날이나 되면 얼굴 보고 사는 거지 뭐. 나 요새 나이 많이 먹었다고,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로 넘어가서 지원시간도 하루에 3시간밖에 안돼. 그때 활동가들이 와서 휠체어 앉는 거 도와줘서 갔지, 정용이 떠나는 장례식장도 못 갈 뻔했어.

여기 2015년에 이사 와서 사니 햇수로 5년 되었네. 학교에서는 처음 누가 온 거야. 반가워. 처음에 시설에서 나와서 우리가 마로니에공원에서 농성하고 했잖아. 나는 글도 떠듬떠듬 읽고 수도 헛갈려. 어릴 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다 잘 모르니까, 학교 가서 많이 배웠지. 우리 어디 놀러도 많이 다녔잖아. 23년 동안 시설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모진 꼴 다 당하고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시설에서 나오고 학교 다니면서 이런 저런 거 많이 했었네. 허신행 선생이 우리 어디 철도(회관)에서 결혼하는 것도 도와주고 했었지. 근데 요즘에는 집에만 있어. 여기 오고 처음에는 사람들도 보고 싶고 했었는데 연락하기에도 다들 바쁜데 뭐.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보니 5년이 되었고 이제 다 까먹었어.

### 용남의 이야기,

나 이거 뭐하는지, <노들바람> 알아요. 저기 꽃혀 있는 거 보이지. 돈 생기면 후원하려고 꽃아두었어. 아직

은 한 번도 못했네. 이제 나도 환갑이에요. 나이가 자꾸 그렇게 먹어. 올해 환갑이라고 야학의 태종이랑 같이 역에 나가서 갈비 먹고 왔어. 야학에서 봉투 준 것도 잘 받았고. 같이 사는 이 사람도 벌써 73살이네. 우리 동갑이야, 띠동갑. 그래도 나는 활동지원사가 오후에 와요. 오전에 기욱씨 요양보호사가 아침 겸 점심 차려주면 저녁이랑 해서는 활동지원사가 일을 해주는 거지.

보통은 티비 보고 나는 가끔 밖에 공원도 나가고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해. 어제 말복이었어서 오늘 마트 가서 닭 사다가 끓여 먹으려고, 이제 여름 다갔네. 날 좀 풀리면 기욱씨랑 같이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해야지. 지금은 날이 더워서 나가면 이 사람 몸도 안좋은데 괜히 더위먹으면 어떻게해. 에어컨 보이지? 작은데 잘 된다고. 가끔 틀고 자고 여기 앞뒤 문을 다 열어놓으면 그래도 좀 시원해. 명희 선생은 이제 나이가 몇이야? 학교 다닐 때 명희 선생 졸업식 갔었잖아. 대학교 처음 가봤어. 기욱씨는 그 전날 짝도 했다고.

우리는 어디 다니는 데는 없어. 복지관이나 센터 같은 데 말야. 가끔 도시락 지원사업을 어디더라, 지원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것 좀 이용하고 있고. 보통 텔레비전 보면서 살고 있지. 아침뉴스부터 보니까 세상소식은 다 알고 있어. 나 시설 가기 전에 음식점 주방에서 일했잖아. 교통 사고 당해서 이렇게 장애인이 된 거니까.



저기 가족사진 보이지? 우리 형제들이야. 큰형은 죽었어. 그래도 가끔 형님네 조카들한테 문자도 오고 연락도 하고 살고 있어. 시설에 나도 오래 살았잖아. 교통사고 당하고 돌봐줄 가족도 없고 하니 석암재단 시설에 간 거였는데, 시설가고 하니 부모님 제사 한번 못가보고 근데 지금도 여기 집도 멀고 하나까 잘 못 가봤네.

기옥언니랑 용남형이 나 졸업식 때 온 거 생각나요. 그때 우리 집에서도 늦게 와서 학교사람들이 기옥&용남을 우리 부모님인줄 알고 인사했잖아요. 야학사람들 많이 왔었는데. 어느 무엇보다 든든한 뒷배 같았어요. 근데 나는 너무 늦게 온 거 같아서 미안해. 추석 전후로 날 잡아서 어디 놀러가요. 휠체어 탈 수 있는 특장차 끌고 올게요. 그때는 우리 또 더 많은 이야기 해요.

**그리고, 명희의 이야기.**

활동보조 서비스 받으면서 만 65세가 되면 활동보조서비스에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로 넘어가도록 또 심사를 받잖아요. 활동지원서비스에 연령제한 폐지하라고 지금 투쟁하고 있어요. (기옥: 또 농성을 한다고? 대단들 해.) 그렇게 되면 기옥언니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300시간 넘게 받다가 거의 30시간, 1/10로 줄어든 건데,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답답하잖아요.



##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 故 황정용을 보내며

노들 편집위원회

정리 김유미    녹취 조정민    도움 박임당

석암투쟁 1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치고, 7월 13일 석암비대위 황정용 님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마로니에공원에서 고인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어쩌다 한번이었지만 얼굴에 매서움을 풀고 웃어주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귀해서 종종 떠오를 것입니다. 14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고 황정용 동지 추모식에서 발표된 발언들을 정리해 실었습니다.

### 故황정용 동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의 활동명은 '큰손'이었습니다. 시설에 사는 많은 장애인들을 큰손으로 데리고 나가고 싶다고 했던 황정용 동지의 뜻이 담긴 활동 명이었습니다. 황정용 동지가 살아생전에 투쟁의 현장에서 든든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우리와 함께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황정용 동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기억하고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탈시설자립생활 운동가 '큰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황정용동지가 가시는 길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07월 16일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단/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석암재단생활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



###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 故 황정용동지 약력

- 1959년 11월 12일, 출생
- 성인이 된 후 도장 기술을 배워 가족들을 부양
- 2007년 1월 30일,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입소
- 2009년 6월 4일, 탈시설자립생활정책을 요구하며 62일간 노숙농성
- 2017년 10월, 임대주택으로 입주
- 석암재단생활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활동
- 다큐멘터리 『시설장애인의 역습(2009, 박종필 감독)』 출연
-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 설립
- 탈시설 당사자로서 탈시설 멘토로 활동하는 등 각종 현장에 활발히 참여

지난 4월에 정용형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응급실에 가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센터 식구들이랑 같이 집에 놀러갔어요. 정용형이 식사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과일이랑 황도캔을 사들고 가서 술을 많이 마시더라도 챙겨 먹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알겠다고 했는데 사흘만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황정용 동지는 1959년 11월 12일에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도장 파는 일을 배워서 실제로 도장을 파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가 심해져서 2007년 1월 30일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인권침해와 시설비리의 온상인 석암재단 산하 시설이었고 2008년부터 석암재단 산하에 살던 장애인들은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시설비리와 인권침해를 척결하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4일 탈시설 정책이라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시설에서 무작정 짐을 싸들고 나와서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을 한 8명 중의 1명이 정용형입니다. 62일간의 노숙농성으로 탈시설 권리가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반영으로 이루어졌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 대구, 광주, 전주, 인천 등 지역 탈시설 정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정용형은 그 이후에 서울시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진수형이랑 임대주택에서 사셨고 2017년 10월에는 드디어 자신만의 집을 얻어서 강서구 가양5단지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체험홈에서 거주하면서 정용형은 석암재단 산하 거주시설이 김포에 있는데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뜻을 모아 8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시설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자고 결의를 하면서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황정용이며 옆에 계신 동림이고 같이 활동했던 진수입니다.

정용이형 활동명이 큰손이었거든요. '왜 큰손으로 정했냐?' 물어봤을 때 '탈시설 계의 큰손이 되고 싶다. 그래서 시설에서 사는 많은 장애인들을 큰손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너무나 그립고 앞으로 먼길을 가서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만, 우리 같이 활동했던 큰손을 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조은별**

석암 베데스다 비리가 터져서 같이 투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천구청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노숙농성을 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할 때 황정용이가 동상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1년에 서너번 씩 손에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 친구가 추위를 엄청 타요. 한여름에도 잠바를 입고 다닙니다. 그런 친구가 너무 안타깝지만 같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 내성적이고 남에게 싫은 소리 절대 안하고 법 없이도 살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형님 내가 나가서 투쟁을 하면 내 한 몸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용아 우리는 한 몸 아니냐. 일당 100이라고 하지만 니가 함께 힘 보태주면 우리 탈시설의 역사가 빨리 오지않을까. 같이 나갈래?" 가만히 생각하더니 "형님 그럼 나갑시다"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용남이에게 같이 나갈래? 하니깐 "나가야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7시, 8시 센터에서 차가 와서 아침밥도 안 먹고 같습니다.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가자고 하면 아무말 없이 같이 갑니다.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착했습니다. 비록 술을 좋아했지만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폐 안 끼치고, 누굴 만나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절대 반말 하지 않고, 특히 김용남이하고 정용이가 동갑친구입니다. 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재밌습니다. "황정용씨 우리 한잔만 먹고 갑시다." "그래요 김용남씨." 둘이 서로 존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반말로 하면서... 비록 14년동안 같이 투쟁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정용이가 돌아가실 때 옆에 누가가가 있었더라면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할 일은 활동보조 24시간, 탈시설, 등급제 폐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안 벌어지게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진수**

정용동지를 만나면 저를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동생같이 생각하면서 만날 때마다 술 많이 먹지 말고 밥 챙겨 먹으라고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한 달 전에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정용동지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너무 왜소해져서 놀랐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지금도 술을 먹느냐, 이렇게 살이 빠져 어떻게 하나, 같이 투쟁해서 이 세상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깐 웃으면서 "예~~" 술을 안 먹는다는 말은 안해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제발 좀 줄여라 하고 앞에 가는 사람 뒤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웬지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가다가 돌아봤는데 누구를 기다리는지 길에 서 있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살았을 때는 맨날 술 먹지 말

라고 잔소리하는 누나여서 오늘은 대구에서 술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갔으니까 맛나게 드시고 잘 가시라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모진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술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겠는가. 그 젊은 때 기들을 다 팽개치고 삶을 단념하고 살아야하는 것을 술이 아니면 어찌 살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울분과 내 자신의 장애를 그리고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술이라도 먹고 잠들고 싶었다는 걸 가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누이라고 부르는데 그날은 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손을 잡으면서 왜 한번 밥을 같이 못 먹었는가, 자기가 싫다고 해도 내가 끝까지 붙잡고 밥 먹자고 왜 못했는지 모든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정말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았다면 급하게 119라도 불러서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아직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이 병문안을 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활동보조 시간을 쪼개서 살다보니 활동보조인이 돌아가고 난 뒤에 그렇게 혼자서 외롭게 피 토 하면서 이 세상을 가면서 얼마나 아프며,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왜 자기가 먼저 가야하는지를... 정말 내세가 있어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멋진 남성으로 이 생에서 못했던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멋지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명애

먼저 죄송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베데스다 요양원에 형님을 모셔다 드린 장본인입니다. 끝까지 형님을 보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맘속으로 짐이 됐다고 생각했고, 지금 와서 같이 활동했던 동지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베데스다 요양원에서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한테 찾아가서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형의 뜻을 모르고 저는 형에게 비참한 말만 남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지분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했던 분을 저는 동생이란 이유로 형을 마음속으로 많이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형님을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동지분들한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형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행하셨는지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형님에 대한 제 마음도 달리 먹겠습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가족 황주용

사람은 만나기를 잘 만나야 한다. 어디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디에 자기에 있는가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황정용 동지는 2008년 석암재단 그 당시 베데스다 요양원 시설비리 인권침해 투쟁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가 황정용. 탈시설이란 말과 자립생활이라는 말조차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자립생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그리고 시설에서 나가자는 말을 듣고 만났습니다. 이조차도 누군가가 꼬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하 동지가 저한테 시설비리 인권침해, 탈시설 투쟁하는 석암이 있는데 같이 싸우자고 안 그랬으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거 개고생할 건데 그걸 왜 싸워, 예바다 10년 투쟁했고 시설 인권침해, 비리 그렇게 싸워도 변하지 않는 세상인데 또 그 개고생해가지고 만들어놓으면 뭐가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정용형이랑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며 고통스러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좀 술 먹지마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형인 줄 알았는데 지가 형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민증을 깎어요. 딱 1년차가 나더라고요. 그 뒤로 뺨으로 말을 까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도 "경석아! 똑바로해!" 난 맨날 똑바로 하는데, 나는 "형이나 술 먹지 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예바다 투쟁을 10년 했습니다. 예바다는 바뀌었고 법인이 교체되었습니다. 석암재단 비리도 투쟁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바뀌었고 이름도 향유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거기 사람들이 지원주택을 통해서 나오려고 합니다. 베데스다라고 불렀던 지금의 향유의 집은 반드시 폐쇄돼야 합니다. 그 힘을 만든 것은 바로 마로니에 공원의 아들이었고 우리 함께 싸운 동지들이 아니었나합니다. 그 투쟁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밑거름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시설 속에서 잘 운영하면 되는, 그 안에 살았어야 할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전히 시설은 시퍼런 권력으로 살아있고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복지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탈시설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을 또 다시 반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왜 선택을 강요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설이 싫어요. 싫어요. 감옥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정용형의 이 이야기를, 그리고 시설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명예훼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을 우리는 또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동지를 또 이렇게 보내고 정용형한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같이 있다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하나 만들고 갔으면 좋았겠다는 동생의 야속한, 정말 화가 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09년 6월 4일날 나왔고 2019년 6월 4일 10주년을 했고 2029년 6월 4일에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하나 만들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때 괜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탈시설 자립생활이라는 이런 언어를 아직 법적으로도 제대로 집어넣지도 못하고 있는 서러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그 마음 잘 나누고 정용형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노들장애인아학 고장 박경석

## 어느 발달장애인의 생존기록

### 홍은전

노들야학 휴직교사입니다. 노들야학 스무해 이야기 <노란들판의 꿈>을 썼고요, 그 책을 쓴 덕분에 이리저리한 인권 기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재 노동자, <반올림> 황상기 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있어요. 덜 바쁜 날엔 야학에 복직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바쁜 날엔 복직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바쁜 날들의 연속이네요.



3월, 기정(가명)의 어머니가 쓰러졌다. 85살의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 갔다가 그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마흔에 낳은 딸이 마흔다섯이 될 때

까지 어머니는 단 하루도 이날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이 이별을 하루라도 더 지연시키는 일. 버티고 버티던 어머니는 별안간 사라졌다. 덩그러니 혼자 남은 기정은 중증 발달장애인이었다.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혼자서는 밥을 먹고 씻고 화장실을 가는 일이 불가능했다. 기정이 먼 친척의 부축을 받으며 노들장애인야학을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다. 그들은 가족이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이 시설에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방법을 몰랐으므로 방법을 찾아보자며 노들은 기정의 상황을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시켰다.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이란 것을 수립해야 했다. 5월, 기정이 사는 광희동, 중구, 서울시의 장애인복지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야학 교사가 말했다. "그 회의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개인별 지원계획이란 다른 아닌 '시설 입소'였다. 문제는 서

울시가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장애인시설의 신규 입소를 금지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정신병원이나 비서울지역 장애인시설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자신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절망적이었던 것은 순진하고 무례한 공무원들의 태도였다. 기정에겐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했다. 그러나 국가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으니 사비로 쓰도록 하라며, 친절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금액을 알려주더라는 것이었다. 그게 얼마냐고 내가 묻자 야학 교사가 대답했다. "한달에 500만원이 넘죠." 나는 새삼 놀랐다. 그것은 늙은 어머니가 홀로 감당해 온 노동의 무게이자 국가가 가족에게 떠맡긴 복지의 무게였다. 그 책임자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가족의 고통을 깎아내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간혹 때렸다고 하던데, 맞고 사는 것보다 시설에 들어가는 게 더 낫죠."

그사이 기정은 천덕꾸러기처럼 이 보호시설에서 저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낯선 환경에 던져진 기정은 식사를 거부했고 잠을 자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를 찾았다.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계속 강제로 먹어야 했다. 5월 말, 야학 교사가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기정은 식물인간처럼 무력했다.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고 엉덩이엔 욕창까지 생겨 있었다. 그대로 두었다간 죽거나 정신병원에 가게 될지 몰랐다.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야학 교사가 말했다. '방법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데 석달이 걸렸다. 그 말은 새삼스럽게 뼈아팠다. 방법이 있었다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시설에 보냈을까. 방법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기를 기도했을까.

6월, 방법이 없었으므로 노들은 기정의 손을 잡았다. 함께 살아보기로, 함께 싸워보기로, 그 불확실한 미래에 함께 힘써보기로 한 것이다. 기정은 석달 만

에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딸을 위해 만들어둔 누룽지와 매실액, 온갖 약재가 가득한 집에서 기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노들은 대책위를 꾸렸다. 그리고 24시간 활동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여성 활동가 스무명이 조를 짜 기정의 낮과 밤을 함께 채웠다. 그리고 구청과 서울시에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요구하며 싸웠고 드디어 쟁취했다. 7월, 기정은 가까스로 살아 남았다.

2009년, 8명의 신체장애인이 시설을 뛰쳐나와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싸운 뒤 10년이 흘렀다. 그들이 온몸을 던져서 만든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 2019년의 나는 2009년의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에서 살아간다. 2019년의 최전선엔 기정이 있다. 처음 기정이 친척의 부축을 받고 찾아왔던 그날처럼 나는 노들의 활동가들에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 기정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폭풍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말했다. "음~ 기정 언니는 일단 밥을 먹어야 해요." 기정이 어서 건강을 회복하기를, 그리고 노들과 함께 이 사회의 수많은 '기정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기를 응원한다.

\*이 글은 <한겨레>에도 실렸습니다.

# 새로운 도전이었던, 어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하여

## 박미주

저는 노들센터 활동지원팀에서 있다가 얼마 전에 자립옹호팀으로 옮긴 미추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너무 익숙한 이름이 돼버린 언니를 처음 만난 건, 2019년 5월,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이다. 병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장님의 전화 한 통이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다. 보행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하다는 정도의 간단한 정보(?)만을 듣고 우선 언니가 있는 단기보호시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에는 휠체어를 탄 채로 몸이 늘어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장애여성 한 명이 있었다. 나는 당연히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그 옆을 지나쳐 가니, “혹시 방금 전 통화하신 분인가요?”하고 옆에 앉았던 활동지원사가 말을 건넸다. 내가 그 옆에 앉아 “기정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 눈동자만 겨우 돌려 나를 쳐다보고는 흐릿했지만 아주 예쁜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 날, 이 순간이 한 편의 짧은 영상처럼 내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종종 떠오르는 한다. 6,7월 언니의 24시간을 지원하면서 내



한계와 마주할 때마다 많이 울기도 했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성장할 수 있었다.

## 6월

어머니와 떨어져 홀로 남겨진 언니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24시간 활동 지원서비스였다. 하지만 활동지원 시간은 터무니없이 모자랐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와 노들에서 지원이 가능했지만, 언니의 밤 시간이 문제였다. 하루 8만원이 가족들 선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밤 10시-아침10시, 일당 8만원.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지금 생각해도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이었다. 나에게, 우리에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활동가들에게 야간지원을 요청하자.’ 대항로, 노들 등 카톡방에 긴급지원요청을 올렸고, 하루 만에 언니의 30일 동안의 야간지원표가 활동가들

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다. 쏟아지는 지원신청 연락과 돈은 받지 않아도 되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애기하라는 활동가들까지. 감격스러웠고 우리 활동가들이, 동지들이 자랑스러웠다. 동지들이 뒤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다 생각하니 든든하고 힘이 났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우리는 서울시와 중구청, 공단에 계속 문을 두드렸고 예상보다 한 달 앞서 문이 열렸다. 활동지원 24시간을 쟁취했다. 희망이 현실이 되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은 진실이었다. 낮과 밤으로 언니의 자립을 위해 지원한 활동가들의 마음이 통했는지, 언니는 점점 기력을 찾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언니가 지역사회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왔다.

## 7월

24시간 활동지원사가 연결되면, 기정언니는 이제 안정적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잘 지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얼마 가지 못했다. 나의 착각이었다. 몸이 늘어서 외출을 할 수 없는 날이 많아졌고, 식욕은 다시 사라져갔다. 언니는 점점 더 말라갔다. 응급실을 가는 날이 잦아졌다. 몇 달 만에 만난 그리웠을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공의 초점이 풀려만 갔다. 다행히 두 시간 정도 지나니 정신이 조금 또렷해져 어머니가 기억이 난 듯 “엄마, 엄마” 몇 차례 힘차게 부르고 어머니와 꼭 껴안았다. 어머니는 “우리 애기, 잘 먹어야한다. 그래야 니가 산다.” 하시며, 언니 앞에 놓인 오메기떡을 입에 넣어주었다. 조금이라도 더, 더 먹으라며 타이르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와 떨리던 손에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어머니가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눕고 싶다며, 노들야학 교실에 침대를 펴고 몸을 누였다. 기정언니는 어머니 옆에 눕고 싶은 듯 휠체어에서 내려

왔다. 두 분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꼭 껴안았다. 평생을 두 분이 그렇게 주무셨다고 한다. 그들이 두 손 꼭 잡고 살아왔을 40여년의 세월 앞에서, 나는 머리가 멍해지고 두려워졌다. 한동안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웠다. 어머니의 무너지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얼마 후, 대책위 회의에서 총괄을 누리님에게 넘기고 일상생활과 병원지원은 야학이, 활동지원과 주거지원은 센터로 역할을 분배했다.

총괄을 넘기고 역할을 분배하고 한 발자국 떨어져 조금 여유를 가지면 내가 놓친 부분이 보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조금 편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몸은 편했는지언정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매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지원을 해왔던 터라 갑작스럽게 일을 나누게 되니 안절부절했다. 누리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랬다. 언니가 병원에 갔다는 말에도 지금 당장 내가 달려가야 할 것만 같았다. 계속 전화하고 연락하는 내가 부담스러웠을 법도 한데, 오히려 누리님은 나에게 일을 나눈다는 게 원래 어려운 일이라며 괜찮다고, 고생했다고 나를 다독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 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혼자 마음의 짐을 가득 지고는 내가 놓친 부분이 보일 리 없었던 것이다. 일든 사람든 꼭 잡고 있는 것 보다 힘을 빼고 놓는 것이 마음이 더 필요한 일이었다. 현재 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 7월 둘째 주부터 기력 없이 몸이 늘어서고 동공 초점이 풀리던 언니는 검사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다. 언니의 여러 가지 복합적 심리·사회적 요인이 신체의 증상으로 나타난 건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느리지만 천천히 다시 한 번. 환한 미소와 함께 경쾌한 목소리로 “엄마, 언니, 아버지” 하며 다시 노들로 걸어 들어올 언니를 나는 두 팔 벌려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기정언니를 믿는다!

[노들아 안녕]

##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 박경인

노들야학 학생입니다.

저는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26살 박경인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져 얼 굴도 모르고 그냥 시설과 그룹홈에서 산 지 26년이 됐고요. 올해 4월월부터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에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알아보고 찾고 물어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연대에서 소개로 노들야학을 알게됐고요.

저는 매일은 못하지만 항상 목요일에 목공반에는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요일이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수지도 보고 형님들도 보고 언니들과 선생님들을 봐서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인연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노들아 안녕]

## 노들과 상빈의 만남

≡≡≡ 박상빈

사회적 기준에 따른 삶을 살다가 가치관이 변해 대안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노들야학에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사회적 기준에 따라 명성과 수익만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동기도 순전히 돈 때문이었고, 학과를 선택할 때도 돈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고른 선택지가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긴 고민 끝에 결국 대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때부터 돈보다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고민한 끝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 사회 만들기'를 가치관으로 삼았습니다. 즉, 불행이 넘치는 현 사회를 넘어선 대안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전선에서 사회 운동을 하는 시민사

회단체 활동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활동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던 중 박경석 교장 선생님의 '최후 변론'을 읽게 되었습니다.

변론문에서는 잘못된 복지제도와 일그러진 사회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장애인들이 묘사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그래서 노들야학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시작한 첫 활동은 박상준 님 초등 검정고시 과외였습니다. 상준 님은 초-중-고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학구열이 엄청나십니다. 다만, 기초가 부족하셔서 일대일로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상준 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장애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야학에 오기 전까지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잘 돌봐줘야 한다는 온정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상준 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장애인도 나와 같은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공부하면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열심히 공부한 끝에 초등 검정고시를 합격하셨습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1학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준 님과 같이 공부한 활동은 장애인과 개인적으로 만날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노들 야학 시스템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안면도 못 톤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김유미 선생님의 수학 수업을 보조했습니다. 저는 중증 장애인 학생분 옆에서 보조해드리고, 주위 학생분들에게 한번 더 설명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조하면서 야학 수업이 돌아가는 구조를 배우고 다양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노들 야학이라는 공동체에 호감

이 많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들 야학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유하고 힘을 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좋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니 2018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박누리 선생님이 신입교사를 제안하셔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신입교사 인준 활동을 하면서 야학 수업과 활동을 좀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다양한 수업에 참관하기도 하고, 권익 옹호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야학에서 학습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바꾸는 운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활동 중에서 광화문 3.1절 기념식 점거 농성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바리케이트로 진입로를 막자, 앞면을 철판으로 감싼 전동휠체어로 바리케이트를 박살 내고 돌진했습니다. 진입로가 뚫리자 뒤에 있던 전동 휠체어 부대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벤져스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동휠체어 부대를 앞으로 하면서 행사장 무대 뒤를 점거했습니다. 그러자 행사 주최 측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구안을 들어줄 때까지 농성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안되면 본 행사 때까지 기다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행정 관계자가 달려와서 이후 만남을 약속하고 농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해야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더 생겼습니다. 또한, 장애 해방은 아직 멀었구나 하는 패배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연합해서 한 걸음씩 나가면 결국 장애 해방에 다다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초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낀 교사 인준 과정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국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수업이라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항상 학생분들과 같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더 나아지리라 생각

합니다. 또한, 교사 활동을 하면서 대학원 입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운동 방식 중 사회 문제의 제도적 접근 방식에 관심이 많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활동하면서 생긴 법적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행정권 행사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인권이 복지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법적 언어로 표현할 법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하는 데에 여러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격부터 해야겠죠? 다가오는 2학기에 열심히 야학 활동하면서 입시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 사회 만들기’를 가치관으로 삼았습니다. 즉, 불행이 넘치는 현 사회를 넘어선 대안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노들아 안녕]

## 산재운동에서 장판으로!

박영일

노들센터 거주시설연계사업 맡고 있는 박영일입니다.

나는 1998년 4월 17일 오전 9시 57분 인천 남동공단 내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250T 프레스라는 기계에 왼손을 눌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산재라는 것도 몰랐다.

산재를 당하고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약칭 산재노협)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활동을 하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노동자들 중 산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본인이 산재인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에게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신청을 함께하는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당하게 불승인을 받은 피해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인정 받을 때까지 싸우는 투쟁까지도 했었다. 또한 산재노협에 가입해 산재노협분들과 함께 산재로 2차 장애를 가진 분들의 싸움에 참여하여 국가에 대항하는 투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에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해오던 조직이 점점 재정이 힘들어져 상근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산재와 관련된 스토리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단체 상근 활동을 그만둔 후에 직장을 다녔는데 간부의

위치에서 사업주의 횡포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강한 충동을 일으키게 되어 그만두게 되었다.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일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없어 직장을 찾아보던 중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올린 활동가 모집 광고를 보게 되어 이력서를 넣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거주시설연계 사업을 맡고

있다. 어느덧 노들센터에서 활동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열의와 확고한 의지를 가진 투쟁의 길에 함께하고자 한다. 앞으로 장판에서 이 한 몸 투쟁으로 불살려 보고 싶다.

투쟁!

열의와 확고한 의지를 가진 투쟁의 길에 함께하고자 한다. 앞으로 장판에서 이 한 몸 투쟁으로 불살려 보고 싶다. 투쟁!

[노들아 안녕]

## 지금-여기, here and now

~~~~~ 위하늘

보기보다 많은 센터판 권익옹호 새내기 활동가입니다.♥

시작에 앞서, “지금-여기”에 대하여 설명하면, 내담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과 정서에 주목하여 상담하는 ‘지금-여기’에서 내담자의 감정과 행동에 주목하여 상담하는 상담기법이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상담기법인데, 기법도 좋지만 뜻 자체가 좋았다. 지금은 나만의 주문처럼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에 충실하자, 난 보다 나은 지금을 위해 행동할꺼야 라고 나를 토닥이는 말이 되었다.

보통, 대인관계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내 자신을 탓한 적이 많았다. 이번

엔 그냥 운이 안좋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억누르고 사는 게, 그게 덜 상처받고 편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참으면서 살았다.



그때의 나는 너무나 자존감이 낮고, 소심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전에, 나를 아껴주고 싶었고, 그 뒤로는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내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냈다.

배우고 싶었던 상담심리에 편입하는 게 첫 단추였던 것 같다. 이미 다른 분야에서 5년정도 일을 해서 금전이나 업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 그때 하던 일을 포기하고 학업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려 했을

때, 주위에서 많이 말리기도 했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게 첫 단추를 끼우고, 과거의 나와는 다르게 무엇이든 결단력 있게 정하고, 행동하려고 시도해보았다. 그러니 일이 잘되었다. 학교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며 모임도 하고, 해외연수도 하고, 혼자 여행도 다녀오고...

아! 중간에 오토바이도 한 대 마련했다. 친구가 오토바이로 집 앞에 데려다 줬는데 무슨 로켓인 줄 알았다... 정말 무서워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도착할 때쯤, 슬쩍 본 풍경이 너무 좋고, 시원한 게 해방감이 들었다. 원래 부모님 말 잘 듣는 착한 딸인데... 처음으로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엄청 혼났지만... 그렇게 고집을 부려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고, 얼마 뒤, 단양까지 장거리로 여행도 다녀왔다 ㅎㅎ 그때 느낀 감정은 해방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이렇게 여러 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전의 나였으면,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을 과감하게 실천했고, 마음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우리의 지금을 위하여 행동합시다!^^

첫 투쟁, 그리고 그 후...

투쟁을 하다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진짜 노숙을 할까? 생각했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첫 투쟁을 하였고, 얼마

뒤엔 조달청에서 밤샘 투쟁을 하게 되었다. 1시간 정도밖에 못자고, 계속 깨어있는 상태라 굉장히 힘들고 낮에도 이미 에너지를 많이 써서 체력이 딸리고, 배도 많이 고팠던 것으로 기억된다. 첫 밤샘투쟁을 한 뒤, 투쟁에 참여하는 많은 활동가들의 건강이 심히 걱정되었다. 오랜시간 투쟁으로 인해 활동보조인이 가는 바람에 화장실이 가는 것을 대비하여 물을 적게 먹고, 어떤 분은 정말 어렵게 화장실을 갔고, 휠체어에서 내려오지 못하여 온 몸에 땀이 비오듯 적기도 하였다.

나는 투쟁이 힘든 건 둘째치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밖으로 내몰은 정부와 그저 우리가 예산 달라고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민들의 시선, 이렇게 투쟁을 해도 언론에 나오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 등등 모든 것들에 울화가 치밀었다.

우리가 굳이 이 무더운 날, 밖에 나와서 도로 점거를 하고, 행진을 하고, 또 농성장을 지키는 이러한 모든 투쟁의 진짜 이유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어 지금보다 모두에게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여러 활동가분들께서 투쟁 때마다 그만두는 건 아닌지,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감사하게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감기도 잘 안 걸리는 보기보다 튼튼한 사람입니다. 걱정마세요! 끝까지 함께 차별에 저항합니다. 투쟁!!

[노들아 안녕]

## 노란 : 들판

한예인

이것저것 다 하느라 바쁜 와중에 노란들판 입사해서 더 바빠진 무지개 예술맨(현직 디자이너, 5개월 차).

노란색이 좋아서 노란들판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지만 사실입니다. 머리까지 노랗게 물들었는데....

노란들판은 활동하던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서 디자인 업무를 맡아 하던 중 현수막과 배너를 주문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고객에서 직원까지 이어주는 빨간, 아니 노란 실이 제 손가락에 묶여있는 건 아닐까요. 궁금해서 언젠가 꼭 한 번 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곳에 입사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노란들판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너른가을 눈이 떠올랐습니다. 그 발을 어릴 적부

터 지키며 자라왔기 때문일까요. 세상 물정 모르고 눈밭에서 살아온 시간들을 부정하듯이, 서울 생활은 세상이 얼마나 녹록치 않은지를 순식간에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이란 곳은 저에게 도피처였습니다. 지구가 갈라져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답답한 사람들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불안하고 자유로운 곳이었습시다. 늘 모든 일이 즐겁고 잘 되지 않아도, 이곳에서라면 무얼 하든 온전한 나로서 해낼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노란들판이란 저에게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존재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생각



을 말할 수 있는 곳, 서로와 공간을 위한 노력이 무산되지 않는 곳, 틀림과 다름이 구분되는 곳,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 당연한 곳. 필요한 만큼 소중해지는 공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들판은 마냥 평평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딘가 돌이 박혀있고, 움푹 패여있고, 풀이 자라거나 물이 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모두 치우고 메운다고 해서 들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란색이 좋아서 노란들판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란색은 저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니까요. 색중에 가장 밝은 것이 노랑이라 하는 만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즐거워서 힘이 남을 느낍니다. 2019년 3월 처음 출근하던 날, 어쩌면 그 이전부터 노란들판의 공기도 그런 모습이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노란들판과 함께한 지 이제 막 5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여전히 노란들판은 노란색으로 가득합니다. 그 노란색이 맑든, 탁하든, 밝든, 어둡든, 노란빛을 잃지 않는다면야 노란색은 노란색입니다. 갈 수 있고, 계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쉬고 난 후 권익옹호로 현장에 처음으로 나가는 날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행동은 조금 두려웠습니다. 권익옹호 현장은

10년 동안 하지 않다가 나간 서명전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당황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많은 눈들이 나를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 어색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너무 빠르게 적응하려고 하지 말자,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자.'라고 다짐을 하고 적응하도록 노력하니 끝날 때에는 조금 적응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살면서 장애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살다보니 편의시설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편의시설 조사원으로 2년 동안 조사하다가 보니 아직도 우리나라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편의시설 조사를 열심히 하고 권익옹호 활동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권익옹호를 계기로 마음가짐이 조금이나마 운동성을 드러나게 된 것 같고, 아직 부족하지만 운동성 있는 운동가로 발전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 활보로 자립하고 공감하다



정지원  
활동지원사

나는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했다. 그때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던 선생님의 소개로 장애인 활동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일이란, 장애인의 집으로 가서 가사와 신체, 사회적 활동을 돌보는 일이다. 처음엔 생활비도 빠듯할 정도의 수입이었다. 그러다 차츰 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축도 하게 되었고 학비와 책값, 생활비의 전반을 해결하게 되었다.

나의 이용자 그녀는 뇌병변장애인이다. 뇌병변장애가 있으면 뇌의 손상으로 신경근육이 마비되고 틀어져서 손발을 쓰는 것도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게 된다. 해서, 밥을 먹고 씻고 외출하는 일을 내가 돕는다. 그녀는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야학도 다니고, 직업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일상을 바쁘게 보낸다. 그래서 나도 엄청 바쁘게 돌아다닌다.

그녀는 장애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도록 돕는 멘토 역할도 했다. 그녀의 소통 방법은 핸드폰. 떨리는 손가락으로 핸드폰에 문자를 써서 상대 장애인

에게 소리로 들려준다. 그러면 상대 장애인은 그 소리를 듣고 휠체어 발판에 '발'로 글을 써서 의사를 표현한다. 이때 내가 할 일은 이들이 주고받는 의사표현에 집중해서 서로가 이해하도록 이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일이다. 전달이 안 될 땐 여러 번 묻는다. 그녀의 숙제를 위해 이것을 글로 받아 적어서 전달할 때면 흐뭇하기도 했다. 한날은 그녀가 시무룩해 있었다. 밥도 잘 못 먹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 그녀는 앞으로 있을 상견례 때 시댁 식구를 만날 일이 걱정이라고 했다. 결혼 전에 시댁 식구를 한번 만나야 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상견례 진행 상황을 듣고 난 후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해주었다. "다른 절차는 다 준비 됐으니 그날은 인사드리고 밥만 맛있게 먹고 오면 된다."고. 그러자 고민이 풀렸는지 그녀의 얼굴에 바로 화색이 돌았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5월에 결혼을 했다.

이처럼 활보 일은 나에게 경제적 자립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상대와 공감하는 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교단일기]

## '선'과 '속도'

충근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하는 디자이너. 사회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의문을 품고,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이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 만나는 선들은 대부분 직선에 가깝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책상도, 책상 위의 컴퓨터 화면도, 창문도, 창문 밖의 건물들도 모두 곧다. 내가 종이 위에 그려온 선들도 그랬다. 초·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린 도형들은 완전한 대칭을 이루는 형태이거나, 완전무결한 규칙이 있는 그래프들이었다.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해 선을 그리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완벽한 동그라미와 세모가 그려지고 깔끔한 표가 만들어진다.

진(Zine)수업에서 만난 학생들의 선은 달랐다. 진(Zine)수업은 현재 노들야학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낮수업이다. 나는 지난 해 2학기부터 1년 가까이 선생님이로 수업을 함께 하고 있다. 학생들은 각자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나 관심사를 자유롭게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진(Zine)을 만든다. 집, 사람, 자동차, 꽃과 같은 구체적

인 대상이나 점, 선과 같은 추상적인 형태들은 종이 위에 색연필로 그려지기도 하고 천 위에 펜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림들은 낱장의 종이일 때도 있고 책의 형태로 엮이기도 하며, 동그란 뱃지가 되기도 한다.



진수업 학생들이 그린 선이나 형태는 흔히 말하는 동그란, 세모난, 네모난 등의 단어들로 묘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언젠가 수업 중에 한 학생분이 그린 그림을 말로 표현하려다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그림을 자세히 보니 동그라미 모양도 아니었고 세모도, 네모도 아니었다. 분명히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긴 했지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묘사하기가 어려웠다. 굳이 말해야 한다면 '두루구불웅둥통둥'한 모양이랄까. 결국은 그림을 가리키며 어떤 모양이 아니라 그냥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틀에 맞춰 바라보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었다.

진수업에 함께한 지 얼마 안됐을 무렵,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다. 몇몇 학생들은 매주 똑같은 대상을 그리거나, 똑같은 방식으로만 그림을 그렸다. 이 모습을 보고 “계속 같은 그림을 그리다보면 지루하지 않을까? 다른 시도를 해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수업을 오래 진행하신 선생님의 말로는 몇 학기째 같은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학생분도 있다고 했다.

그렇게 몇 주, 몇 달을 함께 수업하다보니 다른 면들이 눈에 들어왔다. 매번 똑같다고 생각했던 그림도 무언가 조금씩 달랐다. 펜을 쓰는지 붓을 쓰는지에 따라서도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고 종이의 크기나 재질에 따라서도 다른 그림을 그렸다. 지속적으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알아채지 못했을 작은 변화들이었다. 나중에는 기존에 그렸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학생도 있었다. 앞서 말한 몇 해째 같은 그림을 그려왔다는 학생은 지난 학기부터 새로운 그림 도구를 이용해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속도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학생분들은 분명 각자의 속도에 맞게 나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한다.

학생들의 이러한 모습들에서 나를 발견한다. 나는 글자와 이미지를 다루며 포스터나 책 등의 시각물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이다. 그 중 내 관심사는 이미지 보다는 글자, 특히 한글에 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한 대부분의 작업들을 보면 이미지가 없이 한글이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글자만 있는 밋밋한 작업일 수도 있겠다. 가끔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한글을 가지고 노는 게 더 재밌다. 이미지가 정말 필요하다면, 억지로 만들려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미지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아마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면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나의 ‘속도’에 맞게 나다운 ‘선’을 그려나가면 되는 게 아닐까.

## 살아 숨 쉬는 동그라미의 출판 낮수업 소풍 이야기

소영

클레칸 프로듀서로 5년째 일하고 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이뤄져 있다. 춤알못인 내가 우연히 엠마누엘 사누의 댄스 워크숍에 참여한 걸 계기로 점차 이 춤에 매료되었다. 춤추는 걸 좋아했지만, 인생에서 춤을 계속 추며 살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춤’이란 굵직한 챗터가 내 인생에 자리 잡았다. 현재 춤웹진 뭉진(Mottzine)에서 <소영의 아프리카 만딩고 춤 안내서>를 연재하고 있다. (@cava\_comca)





‘소풍’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신난다. 최근 소풍이라는 시간을 가진 적이 언제였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봄날의 아지랑이마냥 몽롱해졌다. 5월 어느 화요일 오후, 여느 때처럼 춤수업이 끝나고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다음 주에는 넓은 공원으로 소풍을 갈 것이라 유미가 말했다. 날씨 좋은 봄날, 낮수업 선생님들과 참여자들 모두 모여 도시락도 먹고, 다 같이 야외에서 춤도 추며 놀자고 했다. 순간, 기분 좋은 흥분감이 우리들을 감쌌다. 수업이 끝나도 발을 떼지 못하고 평소에 가고 싶던 곳 이야기로 수다를 떨다가 설렘을 안고 헤어졌다.

그리고 일주일 후, 기다리던 소풍날이 왔다. 장소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다행히 햇볕이 짙하고, 봄바람이 솔솔 불었다. 점심을 다 먹고 다들 쉬는 동안, 몇몇은 어디서 춤추면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고 평범에 힘겹지 않게 춤출 수 있을까 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소나무들이 들성들성 위치해 넓은 그늘이 있는 곳, 그리고

공원 중심부와 떨어져 크게 소음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안전한 장소를 골랐다.

연주자 보섭과 정인이 먼저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쟈베와 봉고 연주를 천천히 시작했다. 리듬의 힘은 신비로웠다. 단조로운 공기에 잔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리듬의 크고 작은 물결에 너도 나도 흔들흔들 꼬덕꼬덕 박자를 맞춰본다. 박자에 몸을 맡기며 하늘 위를 쳐다보니, 머리 위 나무들도 구름들도 함께 춤추는 듯하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분다. 공원을 산책하던 이들도 우리의 음악과 춤에 잠시 길을 멈췄다.

연주자들을 둘러싸고, 크고 동그란 원이 만들어졌다. 동그라미는 곧 ‘파티’가 시작된다는 신호다. 누군가 이미 원 안에 자리 잡고 들썩들썩 어깨와 다리를 흥겹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온다. 벌써부터 재밌다. 이 ‘파티’의 규칙은 간단하다. ‘춤고 싶은 사람은 원 안으로 들어와 원하는 만큼 춤춘다. 다른 사람이 원 안에 들어오면 그와 함께 춤추고, 쟈베의 신호에 맞춰 춤을 마친다.’ 춤추다 중간에 멈춰도 괜찮고, 리듬과 달리 움직여도 괜찮다. 춤을 멈춘다면 같이 춤추던 이도 함께 멈출 것이고, 갑자기 느리게 움직인다면 연주하던 이들도 함께 느린 리듬을 연주할 것이다. 음악과 춤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동그라미 안에서 매번 ‘수업’인지 ‘파티’인지 헷갈릴 만큼 즐겁고도 자유로운 에너지들이 오고 갔다.

춤 수업 3년째를 맞은 지금, 참여자들은 선생님 엠마누엘이나 권금이 없어도 자신의 춤을 아주 ‘잘’ 춘다. 오히려 춤 수업에 처음 온 선생님들이 더 속스러워하기도 했다. 엠마누엘은 춤추기 부끄러워하는 이들을 만나면, ‘우리 모두는 매일 춤추고 있다’고 항상 말했다. 춤은 저기 멀리 있는 어떤 TV 스타의 현란한 동작이 아니라, 내 몸 아주 가까이 있는 움직임이라는 걸 강조했다. 그리고 당신이 ‘춤출 수 있다’는 말은 당신이



‘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움직임으로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이 몸의 표현은 국적과 문화, 언어를 뛰어 넘어 ‘느낌’으로 통한다.

그럼 춤을 ‘잘’ 춘다는 건 뭘까? 나는 이 날 동그라미 속에서 펼쳐지는 춤들을 촬영하다, 나도 모르게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있었다. 춤추는 이들의 움직임으로 전해지는 감정은 단순하지만 강렬했다. 그 솔직한 느낌을 따라 내 몸도 함께 꿈틀대며, 각기 다른 사람들이 뿜어내는 리듬들에 빠져 들었다. 리듬이 점점 빨라지며 춤추는 이들의 움직임도 함께 공명하는 그 순간, 시간이 아주 짧게 멈춘 것만 같았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산책을 멈추고, 이 동그라미의 춤들을 바라보며 박수쳤던 이들 역시 그랬을 것이다. 현란하고 고난이도의

기술을 잘 수행해낸 무용수를 보고 감동하듯, 나는 이날 아주 큰 박수를 쳤다. 특히 얼굴을 마주한 채, 불꽃 튀듯 에너지를 주고받는 이들의 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춤’이 곧 자기 자신인 듯 춤추는 이들을 보며 나도 이렇게 춤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순간 자신을 느끼며 추는 춤을 보며, 나 또한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존재감’ 가득한 개성 넘치는 움직임들은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동작들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의 감각을 전해 주었다.

하지만 이 감동의 순간들은 오래 가지 않았다. 한껏 흥이 오른 춤판이었는데, 누군가 공원 경비실로 소음 민원을 넣었다며 공원관리자 분이 연주를 제지시켰다. 곁에서 지켜보던 이들도 아쉬운 마음에 관리자를 만류했지만, ‘한 명의 민원이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규



척 아래 '공연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춤판은 마무리되고 말았다. 작은 북 두 개와 스무 명의 박수소리가 언제부터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되었을까.

나는 이 존재감 강한 아름다운 춤들을, 이 살아 숨쉬는 동그라미의 춤판을 계속 보고 싶다. 거리에서, 공원에서, 광장에서, 무대에서. 누구든 춤추고, 누구든 말할 수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서 함께 춤추며,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나의 춤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공동체의 존재감으로 계속 키워져 가면 좋겠다.

당신이 '춤출 수 있다'는 말은  
당신이 '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움직임으로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이 몸의 표현은  
국적과 문화, 언어를 뛰어 넘어  
'느낌'으로 통한다.

형님 한 말씀

노들야학 후원님들께.

김명환: 노들야학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노들야학 무상급식 후원님들의 덕분에 좋은 성과로 잘 마무리 했습니다. 후원님들과 함께 해서 참 좋았습니다. 후원님들의 그 든든함으로 노들야학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든든히 맛나게 먹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수업도 투쟁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노들야학에서 함께 무상급식을 먹는다는 것은 중요하고, 소중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만큼의 깊은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밥 한 끼를 못 먹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식당의 힘이 높아 배고픔을 참고, 수업을 마치고 하고 나서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야학에서 만나면 밥을 먹은 나고 차마 물어 보지 못했던 때로 노들야학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함께 무상급식을 먹으니 참으로 마음이 좋습니다. 노들야학에서 이렇게 함께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게 노들야학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이 계시어서 마음이 참으로 좋습니다. 노들야학의 일상들을 든든한 후원으로 지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운 여름날 늘 건강을 하세요.

## '비와 당신' 2019년 후원주점 평등한 밥상

진수

언제부턴가 소나기에 발 젖는 걸 좋아 한다.



6시가 되자 소낙비가 내렸다. 후원주점이 가장 바쁜 시간에 눈치 없이 하늘은 비를 쏟았다.

두두두두 떨어지는 빗소리는 이제 막 끝난 쿨레칸과 야마가타트윈스터의 공연처럼 리듬있고 힘찼다. 비를 보자 후원 주점 준비팀들은 바쁘게 콘센트를 확인하고 조리대를 천막 가장자리에서 안으로 옮겼다.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은 내리는 비를 보거나, 준비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비는 쉬이 그치지 않고 30분을 더 내렸다. 내리는 비는 주방 천막 지붕에 쌓여 지붕 가운데를 둥그렇게 가라앉혔다. 몇몇 사람들은 손을 하늘로 뻗어 천막 지붕위의 빗물을 바깥으로 떨어트렸다. 떨어트린 비를 맞은 다른 몇몇 사람들은 '앗! 차가워!' 하며 깡충깡충 뛰었다. 발이 젖자,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 대신에 얼굴에 웃음을 띄기 시작했다. 아마도 비를 받아드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발이 젖는 순간부터 이리라. '후원주점에 비라니, 게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에 비라니...'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스물스물 피어 오르는 순간, 비에 발이 젖은 사람들의 웃음 띠 얼굴이



보였다. 비에 젖은 사람들은 '후원주점이고 뭐고 다같이 비맞고 눕시다!'라고 흥을 돋거나, 천막 지붕에 있는 빗물을 지붕 아래 있는 사람 몰래 떨어트려 놀래 키며 장난을 쳤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같이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러자 내 맘속에 있던 생각들은 '오~ 비내리는 후원 주점이라니,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비를 맞다니!'로 바뀌었다. 그 순간, 내 발도 어느새 비에 젖어있었고, 내 얼굴도 웃음에 젖어있었다.

7시에 눈을 떴다. 너무 일러 다시 자고 눈을 떠 보니 8시. 후원 마당 준비팀장을 맡은 나는 9시까지 야학에 가서 천막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서둘러 따릉이를 타고 야학으로 향했다. 마로니에 공원 앞에 따릉이를 세우고 핸드폰을 확인 했는데, 주머니고 가방이고, 핸드폰이 없다. 따릉이를 타도 나지 않았던 땀이 한꺼번에 몸을 적셨다. 후원마당 팀장이 핸드폰이 없이 후원마당을 진행해야 한다면... 등골이 오싹 했다. 왔던 길을 짚어 가며 한

드폰을 찾았다. 다행히도 핸드폰은 은행 씨디기 위에 있었다. 이런, 후원마당의 시작이 불길하다...

후원마당 준비팀들이 모이는 시간은 10시.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후원마당노동시간은 10시부터 10시까지 총 12시간. 뒤풀이 까지 노동으로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를 더해, 누군가에겐 12시간 또 누군가에겐 24시간의 노동이 기다린다. 준비팀은 서빙팀과 주방팀으로 나뉘 일을 한다. 서빙팀은 노들 주차장에 테이블과 의자를 깔고, 테이블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테이블마다 번호를 매기고 테이블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지도를 그려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벽에 붙여 놓는다. 테이블 세팅이 끝나면 서빙팀장이 서빙팀들을 모아놓고 서빙메뉴얼과 그날의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 한다. 자 이제 끝. 시작은 1시. 그때까지 쉬어야 한다. 오늘날만큼은 쉽은 금이다!



주방팀은 주방테이블을 후원마당 한 칸에 세팅하고, 2층과 4층에 나눠 있는 후원 주점 준비물들을 주방 테이블에 갖다 놔야 한다. 물품 이동이 끝나면, 주방팀장이 각 메뉴의 레시피에 대해 공지한다. 이번 후원주점 메뉴는 과일안주부터, 도토리묵, 소세지, 닭강정, 비건 얀순센, 떡태, 피자, 간재미주침, 궁중족발, 비건 브라우니까지 무려 총 10개, 각 메뉴를 맡은 팀들은 레시피를 숙지하고 하루종일 안주를 만드는데, 그 중에 불 앞에서 계속 만들어야 하는 소시지담당은 그 해 후원마당의 고생 아이콘이 된다. 올해 소시지 담당은 박00교사와 정00교사였다. 두 분 고생 많으셨다고 <노들바람> 지면을 빌려 한 번 더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1시가 됐다. ‘자~후원주점 시작 합니다.’ 라는 말을 외치고 후원인을 받는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노동의 시작. 후원 마당이 마무리 되는 10시까지 정신없이 후원인을 맞이한다. 그렇게 후원주점의 일은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다 모두 하나(일)가 되는 일이고, 노동에 노동에 노동을 하다, 나중엔 NO~동(動)을 외치는 일

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6시 30분. 그로부터 비는 내 발이 젖은 그 시간 후로 30분이 더 지나고 나서야 그쳤다. 그 후의 이야기는 예상하듯 혹은 예상과는 다르게 끝이 났다. 그러니까 예상한 것처럼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을 먹고 후원주점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과, 아침의 예상과는 다르게 후원주점은 성황리에 잘 마쳤다는 것이다.

비와 당신이라는 노래 가사와는 다르게, 비는 내렸지만 그날 내린 비처럼 당신은 왔다. 당신이 없었다면 노들야학 후원마당은 없었을 것이고, 노들에서 함께 먹는 급식은 어려워졌을 것이다. 600명이 넘는 인원과 단체에서 후원금을 보태주셨고, 당일 행사엔 100명이 넘는 인원이 후원주점일을 함께 했다. 비와 함께 온 당신께 그날 말 하지 못 한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이 글을 빌려 전한다.

**‘노들야학 후원마당에 와주셔서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후원 마당 스페셜 후기 ★

후원 마당에 참여 한 많은 분들 중, 노들 단위를 제외한 대표 여섯 분을 만나 봤습니다. 후원 마당에 함께 해 주신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리고, 후원 마당에 함께 한 소감을 5글자로 여쭙 봤습니다.



노들야학 후원주점에 함께 한 소감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주방팀 비건 머핀과 비건 브라우니를 담당 리슨투더씨티

“환상적이다”



음료팀 블루레모네이드 담당 커피공방 박철우님

“생각밖꿀잼”



주방팀 도토리묵과 야채스틱 담당 김치명인 이애라님

“행복한 동행”



주방팀 과일안주 담당 한살림 팀 (공연순서에 연대 발언으로 멋진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평등한 밥상”  
“비를 맞았다”



주방팀 비건 양운센 샐러드 담당 카페 별꼴과 친구들

“노들주점 짱짱”



주방팀 닭강정 담당 이형록님과 친구분들

“너무어렵다! ㅎㅎ”



그리고 카페 별꼴팀 만나러 가서 우연히 만난 노들야학 후원인 안연정님

## 저상버스 함께 탑시다!

최영은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센터 권익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최영은입니다.

올해 노들센터 권익옹호 활동으로 저상버스 타기 캠페인 한다고 해서 휠체어 타고 있는 당사자인 저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임산부, 노인들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저상버스를 알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로니에 공원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로 버스 예약도 하고 도착한 광화문에서 권익옹호 활동가들이 각자 흐트러져 피켓팅을 하며 시민들한테 선전물을 나눠주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며 "저상버스를 아십니까?" 물으니깐 어떤 시민들은 안다고 하고 어떤 시민들은 모른다고 확 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는 엄마들은 대부분 저상버스를 알고 있었으며 처음 활동 시작할 때 저상버스 인식 조사 차원으로 스티커 붙이기를 했는데 아이 엄마들은 스티커도 잘 붙여주고 전단지 받아가는 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2000년도 초 장애인운동 선배님들이 열심히 투쟁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장애인들 중에 저상버스를 아는

사람이 50%, 모르는 사람이 50%, 반반이고, 버스 안에 휠체어 좌석 있는 것도 절반 정도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보며 우리의 캠페인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싶다고 싸워서 도입했는데 버스비가 비싸고,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이나, 장애인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게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저상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저상버스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로야 같이 놀자]

# 울퉁불퉁 대명 길이 달라졌어요

박정숙

노들야학 한소리반 학생으로 고졸 검정고시 준비하며 노란들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말하자면 좀 긴 이야기이다. 또 말하자면 어이없는 사건이기도 하다. 종로구 혜화동에는 유명한 거리 대학로가 있다. 공연장이 즐비하고 여러 가지 먹을거리와 매일 밤 거리공연이 있는 마로니에 공원. 주말이면 밤도 낮같이 거리에는 많은 인파가 오가는 곳, 그냥 편안한 곳이다. 이곳에 또 나름 유명한 길 대명로가 있다. 이 길엔 극장 CGV가 있고 먹을거리 볼거리들이 준비해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다. 나는 이 부근에서 이사 다

니며 36년을 살았다. 그동안 혜화동과 대학로를 잇는 길바닥에 보도블록들은 여러 번 뜯기고 깔리고 그때마다 미관상 아름다움을 위해 조금씩 불편해지는 것 같았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은 성대 부근이다. 집에 가려면 지나야 하는 서너 개의 길 중에 이 길을 가장 좋아해서 이틀에 한 번은 대명로를 지나서 퇴근한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길바닥 정비를 한다는 안내가 붙어서 잘 됐다 싶었다. 좁은 길에 양옆으로 턱이 있어서 갈 때마다 덜컹거리고 불편해서 민원을 넣을까, 생각만 하늘만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심 반가웠다. 그냥 무심히 광고 걸개 걸린 것만 보고 지나쳤지 들여다볼 생각은 안했고 공사한다고 해서 한동안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었다.

얼마 후 그 길로 지나가야 했는데 전동스쿠터가 전복될 뻔했다. 실려 있던 작은 짐들이 튀어나가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위주며 걱정을 해주었다. 엉덩이와 허리가 충격으로 통증이 심하게 와서 일단은 멈춰야 했고 살펴보게 되었다. 군데 군데 파헤쳐 지고 한 쪽으로



돌들이 쌓여있고 내가 지나다 멈춘 곳은 초록색 두꺼운 부직포로 씌워져 있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 아래 울퉁불퉁한 돌판을 깔고 덮어둔 것을 모르고 내가 지나가다 사고가 난 것이다. 어찌어찌 집에는 갔지만 스쿠터가 통통거리며 온몸이 흔들려 머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깨지는 줄 알았다. 욕이 절로 나는, 멋진 것도 뭣도 아닌 보기에도 무서운 불편한 길이 되었다. 그날 이후 얼마간 허리통증으로 고생을 했다.

이 길은 노인도 지나가고 장애인도 유모차도 먹거리 구르마도 지나가야 하는데 모두가 힘겹게 지나거나 어린이들이 뛰어가다 넘어지더라도 하면 대형사고가 날게 뻔한데도 종로구가 세비 쳐들여서 새로 정비한다는 길바닥은 많은 사람들을 배제한 불편한 길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 동네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지나가야 할 텐데 생각하던 차, 교장선생님과 야학선생님들, 야학학생, 전장연 동지들과 페인트칠 투쟁을 하기로 하고 땀별 아래서 우리의 요구를 외쳤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이 삐끗했다고 한마디씩 거들어주었다. 또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다. 모두가 불편한 길을 디

자인하고 공사 중인 구청 사람들만 모르는 듯했다.

우리는 누구나 편히 보행할 수 있는 길 휠체어도, 유모차도, 노점 구르마도, 덜컹 거리지 않고 지나다닐 수 있는 길로 전면 재공사해줄 것을 요구했고 약속을 받았다. 교통약자에게 편한 길이야 말로 모든 보행자들에게 편안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생각하면서 디자인하고 하고 공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함께 산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실천에 있다.

이제 대명로는 변하고 있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되서 조금 어수선하지만 출근할 때 일부러 라도 꼭 이 길을 땀뻘 달려온다. 만약 공사 끝날 때까지 알지 못했거나 우리가 투쟁하지 않았더라면 고쳐지지 않았을 테고,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새로운 공사에 울퉁불퉁 돌을 디자인이라고 깔고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잘못되어 불편한 것을 그냥 참고 견디기 보다는 바로잡음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혹시 대학로에 놀러 오면 대명로에 꼭 한번 가보기를 권해 드린다

## 중로장애인 인권영화제를 마치고

### 꼬비

노들센터 꼬비. 인천에서는 영사실 지킴이. 현장기록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센터 활동가 꼬비입니다. 올 초부터 노들센터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인사를 못한 노들 활동가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서 24회를 맞이한 인천인권영화제의 활동가로 5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들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중로장애인인권영화제의 총괄 제의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인천인권영화제 활동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와 대안 영상 발굴, 인권 감수성 확산이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활동합니다. 그 중에서 중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 인권에 특화되어있는 영화제이고, 인천인권영화제는 올해 인권영화제가 집중해야 할 사회적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활동가는 사회에 계속해서 말을 건네는 사람이

라고 생각합니다. 변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하고,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고,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기 위해 말하기도 합니다. 인권 영화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영상이라는 매체로 사회에 말을 건네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여러 개의 다큐와 극 작품을 보고, 선정하고, 상영하는 일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영상을 통해 현장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곳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인권 사안에 연대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9일에는 4회 중로장애인인권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여섯 작품을 상영하였고, 420여명의 관객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이번 중로장애인인권영화제의 상영작을 선정하면서 현재 장애인 인권운동에서 이야기 되었으면 하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

인권 활동가는 사회에 계속해서 말을 건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하고,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고,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기 위해 말하기도 합니다.

| 구분  | 시간            | 내용                              |
|-----|---------------|---------------------------------|
| 개막식 | 11:00 ~ 12:10 | 인사말 및 축사, 트레일러 상영               |
| 영화1 | 11:00 ~ 12:10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의 기록             |
| 영화2 | 13:30 ~ 14:10 | 애먼                              |
| 영화3 | 14:30 ~ 15:00 | 관객의 대화 수련회 가는 날                 |
| 영화4 | 15:10 ~ 15:50 |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선택 아닌 권리! 관객의 대화 |
| 영화5 | 16:10 ~ 16:40 |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
| 영화6 | 16:50 ~ 17:10 | 해피투게더는 행복의 시작이다                 |
| 폐막식 | 16:50 ~ 17:10 | 대우리                             |

주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주요후원: 중로장애인복지관, 의료재단 서울지역사회, 한국교회노동조합, 서울기부  
사) 노년들만, 노들장애인아카데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 사회적기업 노년들만 후원회  
지원: 서울특별시, 중로구 후원회, 국민은행 031601-04-165177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서울시 중로구 동성로 25 유리빌딩 6층 www.noll.or.kr

정에서 다른 인권현장을 이야기하는 연대작을 상영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제작한 영상이 상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중로장애인인권영화제를 통해서 인권영화제에서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해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하는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AAC(보완대체의사소통)를 사용하는 게스트와 함께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은 영상 활동가에게 소중한 경험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로장애인인권영화제가 문제없이 끝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한 노들센터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활동가들과 찾아와주신 관객 여러분, 영상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년 중로장애인인권영화제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 인강학교 공립화에 즈음하여

이승현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대표이사

## 인사

자유롭고 평등한 노들장애인야학의 26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때 노들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의 문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하는 노들의 활동을 변함없이 지지합니다. 이제 오는 9월1일 공립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서울 인강학교가 '공립화'를 넘어 노들처럼 모든 장애학생들과 교사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특수학교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바램이겠지요?



사회는 서울 인강학교 공립화를 결정하고, 그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 추진해 왔습니다. 토지를 측량하고, 학교 재산을 파악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증여(기부채납)할 목록을 작성하고, 증여에 대해 이사회가 의결하고 서울시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들을 진행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올 9월 공립학교 출범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이제 인강재단과 서울시간 증여계약 체결, 등기 이전, 그리고 오는 2019년 9월1일 공립 도솔학교로의 새 출발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인강학교는 공립학교 전환에 앞서 필요한 실무 준비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파견한 겸임교장과 겸임교감, 그리고 행정실장이 부임해 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 인강학교 재직 교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 2. 그간의 과정

지난해 10월 서울 인강학교에서 발생한 사회복지무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인강재단 이

공립교사, 직원 특별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교직원 특별채용절차는 8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서울 인강학교 공립화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중 하나가 '인적청산'의 문제일 것입니다. 작년 장애학생 폭행 사건 이후,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있었고, 서울장애인인권센터 등 4개기관이 민관합동으로 조사한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이하 인권실태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인권실태조사 결과 서울 인강학교 내부에서 교사들에 의한 장애학생에 대한 광범위한 방임행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9년 4월말경 우리 재단으로 그 결과가 공식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재단은 교육청 감사결과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 5월 자체보강조사를 거쳐 2019년 7월과 8월에 걸쳐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징계에 불복하여 징계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우리 재단을 제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소송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울 인강학교 공립화의 의미

서울 인강학교 공립화는 사립학교 운영주체가 자발적으로 교육청에 재산 일체를 증여하여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립 특수학교들에서 계속해서 발생해 왔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특수학교를 공립화시킨다 해도, 장애학생들을 비장애 학생들과 분리하여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초/중/고등학교 전 학령기를 하나의 학교에서 보내야 한

다는 면에서 아주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 첫째, 학교·교사-학부모·학생 간 관계의 변화, 학부모에 대한 학교/교사의 영향력 감소

사립특수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한번 들어오면 정년을 채울 때까지 그 학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또 학생들도 초등에서 전공과에 이르는 전 학령기를 한 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비장애 학생들의 경우 교사들과 문제가 되면 전학가면 되고, 전학을 가지 않아도 졸업하면 교사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장애학생들은 전학 갈 학교도 마땅치 않고,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다시 그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비록 사립학교 교원이라 할지라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학부모가 다투봤자 이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는 이상 학교와 교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립화는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공립교사들은 적어도 다른 학교와 순환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는 아니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와 교사들의 영향력에 종속적인 처지에 놓이는 것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 둘째, 교직원 담합구조 해체

사립특수학교 교사들은 비록 사립학교 교사이지만, 처우는 공립 교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넉넉한 급여와 철저한 신분보장은 물론, 입시 구조 속의 실적경쟁에서 자유롭게 때문에 오히려 일반학교 교사들보다 더 많

은 시간적 여유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런 물질적 토대와 더불어 한번 정교사로 임용되면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그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다른 교사들, 학교 운영자들과의 유대를 매우 중요시하게 됩니다. 대체로 스포츠나 문화활동 등을 같이 하면서 유대관계를 쌓아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관계들은 언뜻 보면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지만, 강력한 신분보장과 물질적 여유에 강력한 유대관계가 더해지면 어떤 국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담합 구조로 작동하게 됩니다. 외부를 배척하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강고하게 하는 부정적 담합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학교와 교사들의 학부모들에 대한 영향력까지 더해지면 개혁을 좌절시키고, 정당한 민원을 기각시키는 폐쇄적이고 반동적인 담합구조로 기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각 무리들간 패거리문화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의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있어도 묻히고, 학교 교육이 전체적으로 퇴행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공립화 추진은 이런 교사들의 부정적인 담합구조를 해소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립학교에서는 교장은 물론이고, 모든 교직원들이 다른 학교와 순환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교사 또는 학교 운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교직원 임용시 사립학교 운영자의 성향에 종속되었다면 공립학교의 경우는 공립전환시 있는 한시적인 특별채용을 제외하면, 향후에는 임용고시라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임용된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맡게 되기 때문에 교원의 자질과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인강학교의 공립화 추진은 비록 그것이 장애인 특수교육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에는 여전히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 인강학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립 특수학교들에서 발생했던 장애학생 인권침해, 교육권 침해 사건들의 구조적인 원인들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노들장애인야학의  
26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때 노들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의 문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하는  
노들의 활동을 변함없이 지지합니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교사 세미나 후기

이가연

고려대학교에서 헌법을 전공하고 있으며, 소수자의 기본권, 그중 장애와 장애여성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며 공부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에서 장애인법이 따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동 및 여성에 관한 협약 등 많은 국제협약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기존의 협약들은 장애인이 가지는 고유한 쟁점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생겨난 배경에는 유엔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등 많은 국제인권조약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조약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다는 비판에 부딪힌 까닭이 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장애인 운동을 통해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별도의 국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있었고, 마침내 2008년 5월 3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국내에 발효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고장 샘의 표현에 따르면 '앙고 없는 찌뽕'이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을 담은 선택의정서는 비준이 유보되었기 때문이다. 선택의정서 또한 비준하였다면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에서 국내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국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부 측 국가보고서에서는 인권위 자체의 권고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시정명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일 뿐이며, 시정명령은 그 필요요건을 까다롭게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시정명령까지 달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세미나를 하면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권해,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국가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았다.

예를 들어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에는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존재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장애인권리협약이 생겨난 배경과 마찬가지로,

기존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여성의 고유한 권리 및 반차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마침내 별도로 생겨난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인권과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최종견해에서 한국의 장애인 정책과 법률에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가정 및 시설에서 벌어지는 장애여성 대상의 성폭력 조치가 미비하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 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한국의 강제불임 사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권고에 대해 추후 제출된 국가보고서에서는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고 있는 출산 비용 정책을 마치 장애여성에게만 지급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앞으로의 정책적 개선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장애여성 뿐 아니라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생각해보면 나는 평소 헌법과 장애에 관해 공부하면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접한 적이 있지만, 법률가들의 연구를 접했을 뿐, 장애 당사자나 다른 이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기회는 별로 없었다.

국제인권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별다른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권리협약을 알아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느꼈다. 한국에서 현재 투쟁 중인 장애 쟁점들이 장애인권리협약 속에서 교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야기되는 일인 것 같아도 국가보고서와 모니터링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장애인과 함께 연대하고 있

으며 국내적 이슈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연대는 한국 정부에 커다란 압박이 될 것이며 국내의 법과 정책의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게 된다면 권리침해의 사안 별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탈시설, 자립활동 등의 쟁점들을 더 구체화하고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환기해 권리의 보장으로 나아갈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탈시설,  
 자립활동 등의 쟁점들을 더 구체화하고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환기해  
 권리의 보장으로 나아갈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며.....

김상희

아담한 술집에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ㅎㅎ

### 1. 퀴어문화축제에서 자유를 보다.

지난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했었다. 오랜만에 참여한 축제에 설레임도 있었고, 다양한 장신구와 차림새를 하고 축제를 즐기려고 온 사람들 모습에서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거리의 행진을 하면서 마치 거부당한 존재에서 벗어나 자부심이 강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았다. 거리를 당당하게 행진하며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괜찮다고 서로에게 말해주는 듯 했다. 이날 축제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 무엇하나 같은 부분이 없어 보였지만, 서로의 다른 모습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축제에서 다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많아서 이동하기 불편하기도 했고, 아직 축제 참여자들에게 휠체어 탄 장애인 참여자에 대한 어색함이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대 자리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보여서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그리고 축제를 반대하는 이들의 폭력적인 혐오의 말과 행동을 접하며

모욕이 온 몸에 침투하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했다.

### 2. 차별에는 어떤 이유도 타당성 없다.

사실 주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내가 오랜만에 퀴어문화축제에 나간 이유가 있었다.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퀴어문화축제가 불편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성소수자 문제는 장애인인권 문제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는 개인의 자유적 입장으로서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것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입장들을 향한 저항으로 축제에 참여했었다. 나는 한 사회 안에 차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차별의 이유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치명적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바이러스는 퍼지고 퍼져서 다른 독성의 차별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차별 바이러스는 각각 다른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공통성을 띄고 있다. 그 공통성은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



는 '정상성'이란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며 없어져야 하고 불편한 존재를 만들어내어 안 보이는 곳에 숨기고 싶고 안 보인 척하려는 의도는 성소수자와 장애인에게 있는 차별의 본질적인 이유일 것이다.

### 3. 우리는 다르지만 차별의 교차로에서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바로 나의 혈연 가족은 내가 가진 장애를 부끄러워 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존재했지만 유명처럼 여겼었다. 나는 성소수자들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보이지 않은 존재가 되길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람은 한 가지 정체성으로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을 단순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입장이나 이유에서든 성소수자 혐오는 장애인을 혐오한다는 말과 같다. 아무리 종교적인 신념

과 개인의 자유적인 입장을 내세워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차별을 단일 차원으로 바라보면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차별을 일차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다른 차원에서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딱 한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다. 예컨대 흑인이면서 이성애자 남성인 사람은 인종차별의 문제만 없다면 주류가 된다. 마찬가지로 여성이면서 백인 이성애자인 사람은 성차별의 문제만 없다면 주류가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성이고 흑인이면서 동성애자라면 어떨까?'(〈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이 책에 나왔듯이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차별은 일차원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그래서 더 많은 소수자들이 연결되어야 하고 연대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퀴어문화축제를 '그들만의' 축제로 생각하지 않으며 차별받는 주체로서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장애를 가진 나의 문제를 연결하여 활동할 생각이다.

## 故박종필 2주기 추모포럼, 사회운동 활동가의 건강권을 묻다

강혜민

비마이너 기자. 비마이너 기사로 야학 수업하고 싶어서 시사반 수업을 맡았으나 일정에 치여 두 학기밖에 못하고 현재는 휴직 상태. 비마이너의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요즘은 비마이너 돈 벌 공리밖에 안 한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깐. 그래서 여기에도 남겨봅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436-680250 김도현(비마이너)

故박종필 감독 2주기 포럼은 활동가 건강권을 주제로 꾸려졌다. 나는 박종필 감독을 떠올리면 기억과 기록, 이야기에 관한 물음만이 두둥실 떠다녀서 사실 건강권을 주제로 한다고 했을 때 의아하기도 했다. 물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저임금과 자기 자신을 돌보기 힘든 고된 활동과 연관이 있음을 상기하면 아예 무관한 주제는 아니지만, 무언가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의아함의 이유는 '지금 더 시급한 주제도 많은데'라는 내 안의 아우성과 함께 '활동가 건강권'이라는 낯설이 한뫼했던 것 같다.

포럼 후, 포럼에서 발표된 7편의 글들이 비마이너 기고로 나갔다. 포럼 내용을 정리한 기사를 비롯해 7편의 기고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른 풍선을 바늘로 콕 찌러 터뜨린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영역들,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활동가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내 주변 활동가 중에도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건강이 썩 좋지 않다. 개인적인 부주의한 사고(…)로 오른쪽 발목과 무릎이 상시적으로 아프고, 이제 밤 열 시가 넘으면 마우스를 쥐기 어려울 만큼 손목이 아픈 날도 있다. 어깨도 아프다. 발목과 무릎 통증으로 이제 긴 행진 취재는 겁부터 나고, 실제 오래 행진한 날에는 밤에 통증에 시달린다. 오래 걷는 것이 힘드니 운동도 힘들고, 운동이 힘드니 체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생존 체력도 바닥났다. 그렇다고 시간을 별도로 내어 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운동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있어야 한다. 휴식을 하려면 노동 시간부터 줄여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사실 나는 나의 건강 악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펴야 할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 그냥 다 내 탓인 것 같다.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지만... 이 글을 쓰는 현재는 토요일 밤. 나의 건강을 위해 이만 줄여야겠다. 자세한 내용은 포럼을 정리한 비마이너 기사로 대체하고자 한다. 포럼에서 발표된 나머지 글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비마이너 홈페이지



지(www.beminor.com)에서 '박종필'을 검색하면 된다. 비마이너 홈페이지에 들어온 김에 비마이너를 정기 후원한다면 비마이너의 체력과 비마이너 기자들의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미리 감사합니다. 호호.

\*\*\*

**저임금과 휴식 없는 삶, 불투명한 미래...  
지속불가능한 활동가들의 현실**

**박종필 추모사업회, 2주기 맞아  
'활동가 건강권' 논의하는 포럼 개최**

**'보다 나은 사회 꿈꿨지만 나의 미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협받는 활동가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활동비와 과도한 노동, 불투명한 전망.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겪는 현실이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누군가는 질병으로 죽음을 맞기도 한다. 2년 전, '차별에 저항한 영상활동가' 박종필의 죽음은 그러한 현실을 세삼 일깨웠다.

고 박종필 감독 2주기를 맞아 박종필 추모사업회(준)(아래 박종필추사)는 7월 24일 활동가들의 건강권을 고민하는 추모포럼 '사회운동활동가의 건강권을 묻다'를 열었다. 고인은 다큐멘터리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실직노숙자'(1998) 연출을 시작으로 '끝없는 싸움-에바다'(1999), '장애인이동권 투쟁보고서-버스를 타자!'(2002), '노들바람'(2004), '시설장애인의 역습(2009)' 등을 통해 장애인권운동 현장을 지키는 든

든한 기록자였다. 2015년 8월부터는 416연대 미디어 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 '잠수사' 등을 찍고, 세월호가 물으로 올라온 후에는 목포 신항에서 '416 가족선체기록단'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기록했다.

20여 년 가까이 영상활동가로 빈곤, 장애운동, 세월호 현장을 지켜온 고인은 2017년 7월 28일, 만 49세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간암 말기 통보를 받은 지 한 달만이었다. 급작스러운 죽음에 동료 활동가들은 '돈도 안 되는 영상작업과 과도한 일정 때문에 건강 돌볼 시간이 없는 삶이 그의 죽음을 앞당겼다'며 통탄했다.

이번 포럼은 그러한 고민 속에서 꾸려졌다. 조한진희 박종필추사 집행위원장은 "박종필추사는 활동 중에 죽음을 맞이한 활동가 한 명의 죽음을 기리는 것을 넘어, 또 다른 활동가들의 죽음을 막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활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다"면서 "포럼으로 활동가 건강권 이슈가 사회적으로 환기되고, 논의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포럼은 활동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건강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다양한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돌아보고, 활동가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실천 사례를 짚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 고통을 개인의 책임으로 해석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조직 문화 필요해**

이날 기초발제를 한 조한진희 박종필추사 집행위원장은 지속가능한 활동 환경을 위해 아픈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해석하지 않는 문화, 아프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문화, 쉼이 권장되는 문화, 잘 아플 권리가 보장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활동가 중엔 건강을 위해 운동하지 않는 자신

을 탓하거나 규칙적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잦은 야근과 투쟁 사안에 따라 주말도 없이 일하는 활동가 입장에서 이는 극히 어려운 일"이라면서 "건강을 개인이 노력하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고는 박종필의 죽음 앞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종필 죽음의 원인 중 하나로 사람들은 그가 술을 즐겼다는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이에 대해 조한 집행위원장은 "이는 사실이지만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 환경은 유발된 채 술을 즐기지 못한 나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후가 전도된 것"이라면서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은 삶의 환경 개선 속에서 가능한데, 환경 개선 없이 혹은 환경적 요소를 누락시킨 채 개인의 의지만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활동가들은 건강이 손상되어도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조한 집행위원장도 2009년 팔레스타인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독성물질 노출로 건강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를 말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언론들이 운동사회에 가할 비난, 다른 활동가들이 가질 염려와 미안함 등으로 말하기 어려웠다"면서 "다른 활동가들도 자신보다 더 힘든 당사자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다들 아프고 힘든데 아프다고 말하는 게 동료들 힘만 빼는 것 같고, 어차피 대안도 없기 때문에 말을 삼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바로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아프게 되는 현실은 파악되기 어렵고 결국 변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적절한 쉼이 없는 삶이 신진활동가들 진입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활동 환경은 활동가 한 명 한 명의 건강, 복지, 인권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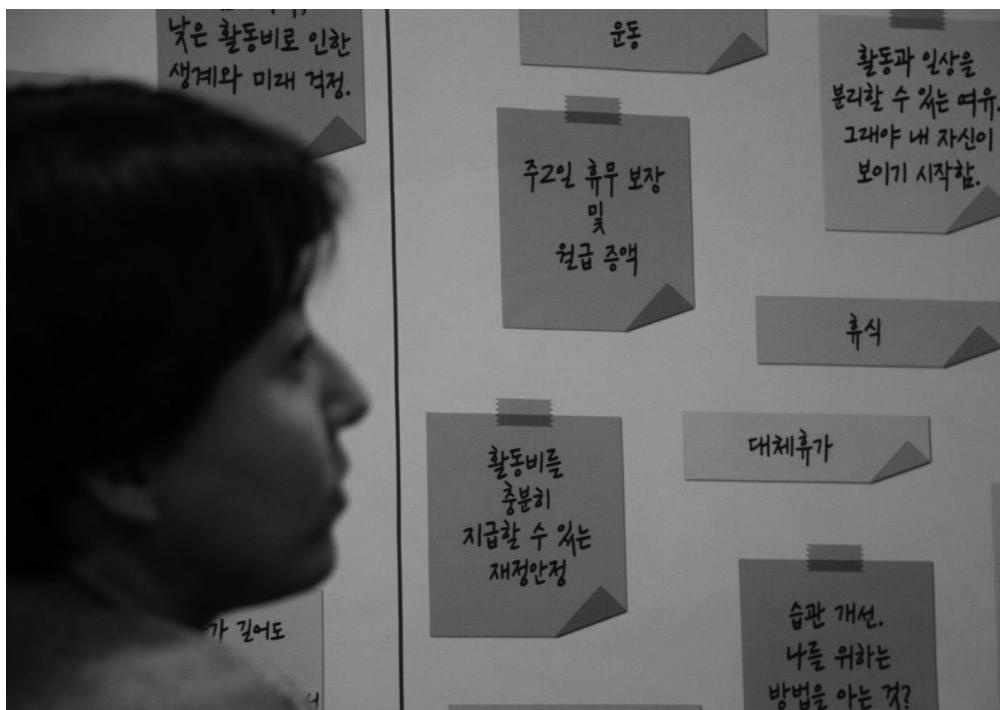
**●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한 활동가들,  
자연스레 고통 흡수하면서 '정신적 고통' 호소**

국가폭력이나 성폭력 등 고통스러운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연대하면서, 활동가들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협받기도 한다.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의 경우가 그렇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10년간 용산참사 피해생존자들의 곁을 지키며,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2009년 1월에 용산참사가 일어나고 355일 만에 당시 사망한 철거민 5명의 장례를 치르게 됐을 때, 이 사무국장은 "활동가들도 심리치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들어왔으나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활동가들이 겪은 내상은 당사자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며, 오히려 이전보다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치유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상황은 그 후에도 지속됐고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이 사무국장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싸움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진다는 걸 느낀다"고 밝혔다.

"유가족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다 잊고 살고 싶다.' 그런데 저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제안하는 입장인데 그때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면 '내가 없으면 유족분들은 다 잊고 살 수 있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6년에 김석기(용산진압 책임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가 경주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유족분들과 낙선운동하러 내려갔어요. 유족들이 상복 입고 피켓 들고 다가가니 그걸 본 김석기가 용산참사 진압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유족분들은 오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참사 이후 6년 만에 김석기를 처음 대면한 거



였어요. 그때 엄청 많이 후회했어요. 운동적으로 당연히 해야 해, 라고만 생각했지... 굉장히 괴로웠어요. 잊고 살 수 있다면,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유족분들도 잊고 살고 싶다면 서로 점점 잊혀질까 봐 무섭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용산참사 운동을 기획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싸워야 하는 게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요.”

운동 기획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내부 갈등 조절이었다. 참사 피해자들은 결코 동일한 욕망으로 묶여있는 단일 집단이 아니다. 용산참사 피해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용산4구역 유족과 연대 유족, 유족과 생존자, 용산 4구역 철거민들과 유족 등 각자가 처한 입장으로 이해관계는 조금씩 달랐고, 시

간이 지날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지만 갔다. 이를 조정하는 것은 활동가의 몫이었다.

이 사무국장은 “외부의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투쟁보다는 내부의 갈등과 이해다툼을 봉합하거나 이해시키려는 과정, 보상 등 협상 이행과 관련한 이해다툼을 조정하는 게 활동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면서 “나는 활동가인가, 해결사인가, 농담처럼 ‘내가 인권활동을 하는 건지, 이권활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국가폭력은 지난 10년간 피해자들과 내게 내밀하게 작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갖는 고통, 트라우마, 분노, 원망 등이 고스란히 내게도 흡수됐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애쓰지 말라고도 하는데 ‘나라도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10년의

활동을 인정받으면서 내가 해결사가 아닌 활동가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다”라고 토로했다.

● 저임금에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맞이한 40대 이후의 삶... 제도 바깥의 대안도 고민해야

나영 성과재생산포럼 활동가는 이렇게 소진되는 구조 속에서 맞이하는 40대와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그는 얼마 전 8년 6개월 동안 활동했던 단체에서 퇴직했는데, 재정이 어려웠던지라 퇴직금은 받지 못하고 한 달치 활동비(120만 원)를 퇴직금으로 대신 받았다. 다행히 이는 식감 전 활동비였고, 실상은 월 80만 원의 활동비만을 받으며 활동해온 터였다. 이처럼 활동가들이 받는 급여는 통상 월급이 아니라 ‘활동비’라고 불린다.

이러한 명칭에 대해 나영 활동가는 “활동가의 활동비는 노동과 성과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활동이 어느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생산 비용에 가깝다”면서 “게다가 활동비는 회원들의 후원금, 프로젝트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받는 활동가들은 또 다른 부담과 의무를 지니게 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후원을 통해 안정적 재정 상태를 꾸릴 수 있는 단체 자체가 소수이기에 매월 급여 성격의 상근 활동비를 받는 활동가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연차가 쌓일수록 실무 역량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전망은 불투명하며 몸은 아픈 40대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활동에 깊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

나영 활동가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짚으면서도 제도 바깥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한국에 온 멕시코 활동가들이 소개한 ‘활동가 자기돌봄 원칙’을 소개하

면서 “이는 개인이 노력한다고 될 문제만은 아니며 이 원칙의 중요성을 조직이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활동가 자기 돌봄 원칙                              |
|-------------------------------------------|
| 1. 자신의 몸이 요구하는 것들을 존중하라.                  |
| 2. 자신만을 위한 커뮤니티를 찾아라. (자기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
| 3.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들을 제한하라.               |
| 4. 트라우마가 되는 경험들을 피하라.                     |
| 5.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라.                  |

나영 활동가는 “당장에 모든 이슈를 쫓아가야 하고 100% 헌신하여 운동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이 활동가 자신과 조직 사이에서 계속해서 악순환될 때, 활동가들은 지속가능한 역량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된다”면서, 이러한 자기돌봄 원칙을 바탕으로 한 별도의 커뮤니티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그 공간에서는 활동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삶에 필요한 자원을 나누는 것이 주가 된다”면서 “제발 모든 단체와 조직들이 활동가 역량보다 그들 삶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우리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활동가도 노동자다” 시민단체 내 ‘노조 결성’도 하나의 방법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가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대안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노동자이자, 활동가,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시민건강연구소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 내 노조를 만들었다. 시민단체로서는 드문 일이다. 시민건강연구



소는 2012년 7월 11일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시민건강연구소 분회를 설립했다.

서상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노조 설립은 사회적 연대 차원이 가장 컸고, 두 번째는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이며, 향후 연구소 규모가 커질 것에 대비한다면 민주적 조직 운영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필요가 있었다”고 설립 목적을 밝혔다. 노조 설립 당시 상근인력은 2명이었지만, 현재는 상근인력 5명에 비상근직원은 1명이다.

서 연구원은 “우리가 일하는 환경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건강권 보장은 어렵다”면서 노조 활동의 결과로 대체 휴무제, 주4일제 도입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소도 야근이 굉장히 많은데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 시간을 지키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공식 휴무일로 지정했다”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단체 공식 행사로 집

회를 갈 경우 대체휴무일을 가진다. 임금 등 다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대신 휴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 또한 업무 특성상 휴무일에 개인이 일하는 것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나 이를 위해 대체휴무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그럼에도 공식적 제도가 있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쉬려고 노력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노조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심리치유와 경제사회적 지원위한 단체 꾸러지기도… ‘통통톡’, ‘동행’ 등 소개**

이날 포럼에서는 당장 활용 가능한 방안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그중 하나가 활동가들의 심리치유를 지원하는 ‘심리치유네트워크 통통톡(아래 통통톡)’과 경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익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아래 동행)’이다.

통통톡은 2016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쌍용차 정리해고자 심리치유를 위해 2013년 설립한 ‘와락’을 포함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하고 있다. 통통톡은 노동자와 사회활동가의 마음돌봄을 위한 개인 상담 지원, 장기투쟁 및 파산으로 인한 실업, 직장괴롭힘 등으로 고통스러운 노동자들의 심리적 위기에 개입하는 활동을 한다.

오현정 와락치유단 상담지원가는 “노동자의 경우, 농성 등으로 집단적 요청이 있는데 사회활동가는 그룹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마음을 돌볼 때, 상호연결감을 회복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감을 확인하면서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교육에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용이 문제라면 통통톡에 문의해달라”면서 “무제한적인 자원을 갖고 있지는 않아 즉각적 도움은 어려울 수 있으나 기다림을 함께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동행은 저임금과 과로, 전망 부재 속에서 떠나는 활동가들을 돕기 위해 2013년 만들어졌다.

여진 동행 활동가는 “2013년 10월 활동가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설문조사했을 때, 위기 시 지원 가능한 안전망에 대한 욕구가 컸다. 이를 기반으로 동행의 사업 계획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행은 질병이나 사망, 상해 시 지원뿐만 아니라 상호부조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행은 경제안전망기금 사업으로 경제적 위기 시 낮은 이율로 긴급 생활 자금 대출도 한다. 여진 활동가는 “주거보증금, 누적된 가게 부채 대출과 함께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의료비 지원이다. 갑작스

러운 수술로 의료비가 높게 나올 경우, 카드 대출이나 고이율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불안정한 가게 경제로 이어진다”면서 “빈곤과 불안정한 생활에 의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대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한진희 박종필추사 집행위원장은 “활동가들이 사회의 미래는 고민하지만 우리 삶의 미래는 고민하지 못하는 게, 나의 미래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동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당장 직접적 대안이나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 다만, 아프다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훨씬 건강이 좋아진다고 한다”면서 “오늘 자리는 활동가 건강권 논의가 잘 되지 않는 현실에서 약간의 물꼬를 트는 자리였으며, 향후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을 꾸려보겠다.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이어나갔으면 한다”며 네시간 30분가량 이어진 포럼을 마무리했다.

[노들 책꽂이]

## 눈부신 생명의 이야기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 - 화상경험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지은이 송효정 박희정 유해정 홍세미 홍은전, 온다프레스

### 박준호

노들과 노들사람들을 좋아하는 노들야학의 교사이자 월요일을 싫어하는 직장인입니다.



2019년 1학기 한소리반 국어 수업 시간에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 - 화상경험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함께 읽었습니다. 6명의 화상경험자를 6명의 인권기록가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수업교재로 정한 이유는 수업교사인 제가 당시 읽고 있던 책이기도 했고 화상으로 인한 장애를 겪게 된 화상경험자분들에 대해 저도, 야학 학생 분들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 보자 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차별과 고통 앞에 섰던 경험이야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을 만큼 많은 우리 학생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저도 책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화상치료의 고통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책에 상세히 기록된 화상치료의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이어서 책장을 덮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상상된 고통마저도 저를 압도하는 그 고통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을지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책을 덮고 잠시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읽고를 반복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중증 화상치료는 입원기간의 집중적인 치료 외에도 몇 년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용은 10억 가까이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개인이 감당할 수 없어 모금과 지원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치료 기간 가족이 눈물겹게 지원한 경우도 있는 반면 화상으로 아픈 누나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한 동생이 있었고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구급차도 불러주지 않았으면서 이후 산재처리가 되었다며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외면했던 회사도 있었습니다.

화상은 장애범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아 화상치료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통계도 정확히 잡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2018 소방방재청 통계로 약 23만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마이너 - 화상장애인 지원, 민간 차원 벗어나 공공 영역으로 확장돼야. 2019년 6월 1일)

화상경험자분들이 책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하신 이야기는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떠한 지식이나 지원체계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곳이 없어 화상을 입고 입원해 있는 사람을 찾아 병원을 전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책의 저자들은 화상경험자들의 경험이 인간승리의 드라마로 읽히거나 동정의 대상으로 읽히기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이미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손을 잡는 멘토 활동을 하

고 계십니다. 길고긴 고통의 문턱에서 걸어 나온 이들을 존중하고 사회가 손을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손을 잡는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 필진의 말을 첨부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책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경험자분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게 해준 필진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아픈 몸을 고치는 건 의사지만 잘못된 사회를 고치는 건 그 사회에 의해 아파본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 목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이 고립되어 있는 화상경험자들을 연결해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고, '화상장애'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이야기를 해주신 송순희, 전나영, 정인숙, 송영훈, 김은채, 엄문희, 정범식, 최려나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필진들을 대표하여 홍은전 씬



노들장애인야학 스물여섯번째 생일 기념 사진, 나눕니다.  
2019년 8월 8일 마로니에공원에서  
사진 정택용

“ 휘청휘청, 함께 웃으며, 굴러온 길 ”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곽상아 (주)머스트자산운용 강남훈 감미자 감미진 강병완 강복현 강성윤 강수혜 강순애 강영미 강용원 강  
윤석 강은실 강주성 감지원 강현욱 강희관 강희연 경석현 고경선 고경화 고동수 고명순 고명희 고병권 고선  
희 고승현 고아라 고재현 고정화 고재현 고주영 고학수 고혜숙 고혜순 공명렬 공선화 공정옥 공태윤 공호  
신 광노근 광성자 광영미 구만순 구민재 구세나 구승기 구현아 권경숙 권기원 권두섭 권민희 권병주  
권영진 권용희 권우정 권은영 권익재 권지은 권진영 권태국 권한기 권혁은 권현기 권혜선 금교영 길성삼 김  
가경 김각군 김건욱 김건형 김경란 김경은 김경혜 김경희 김계숙 김관섭 김관희 김광국 김국란 김규태 김  
근식 김금례 김금순 김금정 김기오 김남수 김남희 김누리 김대희 김덕중 김도경 김도현 김동은 김동진 김  
두경 김란희 김명애 김명학 김명화 김문옥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미주 김미현 김민필 김민  
아 김민영 김민자 김민희 김범강 김범순 김범식 김보경 김보라미 김보람 김보민 김보연 김보영 김보현 김봉  
덕 김봉석 김부연 김상원 김상희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옥 김선화 김선희 김성미 김성은 김성현 김세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혜 김소희 김수경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지 김수한 김숙이 김순남 김순영 김순조 김  
아람 김안지 김애경 김애숙 김연성 김연수 김연정 김연지 김연희 김영년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원수 김영  
숙 김영승 김영옥 김영자 김영현 김영희 김옥 김용남 김용성 김용우 김용욱 김용태 김우경 김원숙 김위교  
김유리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자 김윤진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이중  
김인숙 김인자 김장기 김재영 김재양 김정미 김정민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하 김정현 김종호 김준 김준  
휘 김지민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은 김지호 김지현 김진산 김진수 김진우 김창배 김창우  
김철순 김춘우 김태민 김태승 김태인 김태형 김태훈 김판균 김푸른솔 김필순 김하은 김한민 김한솔 김현령  
김현식 김현심 김현영 김현주 김현화 김형배 김혜경 김혜옥 김혜안 김혜진 김효진 김홍구 김후남 김희정 김  
희창 나기현 나선영 나정숙 나해니 남대호 남두형 남정민 남지현 남효진 노경애 노미경 노상준 노의현 노현  
택 노혜련 노희선 노희정 류명옥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류향희 류혜인 마미주 맹보영 문건화 문경애 문경  
희 문병준 문상빈 문선경 문성원 문소리 문숙자 문은영 문지의 문희정 민혜숙 박경숙 박경아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금숙 박길자 박남주 박남진 박누리 박대수 박덕용 박관희 박명숙 박미영 박미주 박민경  
박민순 박민영 박보건 박상빈 박상일 박상희 박서진 박서희 박선미 박선에 박선우 박선은 박성욱 박성희 박  
세영 박세중 박세호 박송이 박수진 박승원 박승하 박시백 박시형 박애경 박암일 박연희 박영민 박영일 박  
영환 박완선 박완신 박용대 박윤주 박은경 박은미 박은정 박이향 박익선 박익당 박정곤 박재근 박재국 박  
찬욱 박정원 박정희 박종진 박종철 박종필 박종화 박준호 박지민 박지연 박지영 박지운 박찬양 박  
진우 박태영 박찬수 박하순 박현희 박혜수 박효경 박홍석 반영신 방미숙 방복순 방정순 방지연 배경원 배  
문섭 배승천 배안나 배윤주 배준영 배진숙 백미라 백상현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재선 변미선 변  
주옥 서기현 서남고 서남애 서동석 서명순 서명아 서민영 서유나 서은수 서정원 서정용 서주형 서찬욱 석유  
원 석지윤 선우대룡 선해란 서서연 성정현 성장기 소현미 손병갑 손석철 손성권 손성한 손은경 손자경 손  
정배 손정수 손제주 손주영 손준희 손혜연 손환목 송경례 송무림 송미영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송정규 송  
중호 송준섭 송창국 송현정 신미숙 신복순 신봉준 신수정 신숙희 신순영 신승애 신안수 신연실 신영근 신  
원정 신유경 신은덕 신은희 신임식 신진 신현훈 신혜정 신화정 신희숙 심미경 심보름 심선진 심은선 심이  
영 심정구 안가영 안경모 안경희 안남희 안문필 안바라 안석호 안선영 안소연 안영춘 안정원 안준희 안준희  
안중선 안지영 안향미 안희옥 양수경 양수정 양운근 양인순 양현준 양혜영 어수진 엄재균 연수진 연호준  
예해연 오미영 오민섭 오보람 오상만 오세령 오영미 오영철 오원주 오은영 오정자 오정희 오종희 오지은 오  
현숙 옥샘 우영선 우인숙 원명재 원성현 위하늘 유남숙 유문수 유미선 유보배 유성민 유소정 유유빈 유운  
영 유주영 유지영 유창재 유춘식 유현자 윤기범 윤길중 윤대호 윤동구 윤명섭 윤명순 윤미라 윤미선 윤봉  
섭 윤석규 윤선기 윤승용 윤승원 윤이용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일 윤준서 윤현숙 윤호진 윤화숙 윤희  
이강수 이간학 이간호 이경덕 이경아 이경옥 이경운 이경윤 이경훈 이경희 이계삼 이광만 이광재 이군자 이  
근희 이금옥 이금주 이금희 이기순 이길용 이나라 이난경 이동진 이두혁 이라라 이리나 이명화 이명희 이미  
경 이미리엄 이미영 이미지 이미정 이민숙 이병준 이비함 이상림 이상용 이상준 이서윤 이석원 이선진 이선  
희 이선희 이성미 이성연 이성욱 이성호 이소정 이수빈 이수연 이수영 이수정 이순덕 이순웅 이승덕 이승  
훈 이일찬 이연옥 이연주 이영덕 이영란 이영미 이우현 이원진 이유경 이유미 이유진 이윤경 이윤욱 이윤지  
이은미 이은숙 이은애 이은정 이은주 이인영 이장우 이재령 이재승 이정란 이정민 이정숙 이정실 이정욱 이  
정은 이정하 이정희 이재성 이재현 이종국 이종란 이종숙 이종실 이종은 이종현 이종현 이주오 이주옥 이

후원방법 안내

1 후원계좌 안내

• 노들장애인야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극단판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와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준길 이지수 이지연 이지영 이지혜 이지환 이진실 이진영 이진주 이찬미 이창열 이충희 이태곤 이한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우 이현욱 이현정 이현진 이형숙 이호연 이호임 이호중 이효정 이효진 이희은 임경희 임나미 임동근 임명애 임산하 임성순 임세연 임원택 임은영 임은정 임인자 임종익 임주현 임지영 임채원 임향연 장경근 장경주 장귀분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영 장성아 장순임 장욱란 장원 장은경 장정아 장정환 장제형 장준호 장춘환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권세 전기성 전대진 전문갑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영록 전영선 전우석 전옥 전윤경 전은주 전준규 전형진 정규명 정다운 정대수 정병순 정상엽 정상욱 정선에 정선욱 정성락 정성룡 정성철 정성현 정소영 정승이 정승희 정아성 정연숙 정영란 정영만 정영석 정영희 정영균 정용일 정용화 정용훈 정우영 정우중 정운영 정유진 정은경 정은영 정이성 정익화 정재훈 정정민 정정희 정종권 정종현 정종화 정종훈 정지영 정지혜 정진아 정진영 정진이 정창초 정태영 정태원 정택용 정현강 정현진 정혜신 정혜영 정호준 정효란 정훈 정희진 조경애 조규남 조미숙 조미연 조미정 조석환 조성진 조소현 조영재 조윤경 조윤실 조윤정 조은주 조용현 조재범 조지연 조항숙 조혁진 조현경 조혜민 좌동엽 주상연 주상희 주영은 주용준 주은아 주현철 지덕근 지세진 지영숙 지혜를 진도연 진수미 진영옥 진태원 차경단 차민경 차순정 차연화 차한비 채이배 천성호 천영희 천종민 최귀선 최귀숙 최기상 최동호 최미안 최미란 최민경 최민지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승우 최안순 최영선 최영은 최영인 최영자 최영희 최우영 최윤정 최은숙 최은아 최은정 최은화 최은희 최재희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정희 최주형 최진석 최진영 최찬일 최하정 최한별 최현정 최현진 최혜영 추경진 탁현철 태미화 하경남 하인숙 하인혜 하정자 한경준 한남희 한동승 한래희 한명숙 한명희 한명희 한상배 한상엽 한선희 한성안 한송희 한은경 한주영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달주 허보영 허소아 허숙자 허순인 허신행 허영신 허완수 허정일 허진태 허창 허현덕 허효재 홍도순 홍명희 홍석현 홍성원 홍성호 홍세미 홍순희 홍영선 홍은진 홍주영 홍지연 홍진표 홍철기 황무초(무임) 황보솔 황성윤 황승미 황연국 황인현 황정희 황진미 황하연 황혜전 황희준

계좌이체 후원인

가톨릭청년성서모임교 감귀화 강민주 강새나 강수혜 강요한 같이있는가치부스 계획수 고객안전처 고한희 곡명철 김건중 김경애 김미선 김민경 김민화 김선심 김수경 김순화 김영은 김용철 김유빈 김은아 김은재 김은정 김정애 김하나 남완승후원금 노란책값 명규린 박민정 박병천 박성현 박소연 박수진 박은영 박정숙수박선물 박종필 박준하 박현정 박형훈 박혜선 박효경 서금식 석지민 송하영 신동길 신민주 신혜인 신희숙 안성희 안에스더 양천리축제단 오선실 오선에 오재형 율리 유통훈 윤지형 으네 이세영 이승한 이유진 이은정 이정한 이찬민 이한진 이현수 이현숙 이형진 이효상 재)아름다운동행 전혜린 정성현 정은채 정의준 정주희 정현서 정혜훈 조광배 조상지 조송이 주식회사티에이 진은교 착한콜위드고 최다솜 최보영 최지영 최지홍 최평강 쿼퍼책후원 태미화 하윤수 한영옥 한예인 한주하 허병권 현정은 황미향 황재숙 희망열차(김낙현)

물품 후원

- 05월 • 김은삼 단킨도너츠 /박상준 레쓰비 1상자 /간대학교 선생님들 쥬스 1상자  
호연언니 가족 도너츠, 커피 /기정 님 가족 빵 /김강민 몽블 3상자
- 06월 • 최혜영 바카스 2상자 /임태중 환갑기념떡 /송인교회 쌀 40kg /가수 이재영 쌀 50kg /한살림 쌀 90kg
- 07월 • 유선 감자 10kg /책방이음&나와우리 쌀 20kg, 수박 1통 /이영미 책 9권 /한살림 쌀 90kg
- 08월 • 가을 제주굴피차 /이원복수박 4통 /김문주 음료수 /김명희 바카스 1상자 /한살림 쌀 90kg



노란들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실사출력, 인쇄디자인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일터, 서로의 꿈이 상생하는 곳, 모두를 위한 들판을 꿈꿉니다.

디자인 + 인쇄 · 실사출력 · 타이벡  
T 02.469.9101 H www.norandp.co.kr

NEW BRAND 공생공장

**타이벡** made with DuPont™ Tyvek®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아가며 만드는 곳  
‘공생공장’은 타이벡 원단 소재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기존 일회용 현수막을 대체하는 노란들판만의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노란들판만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공생공장은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의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노란들판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 제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Waterproof · Super Light · 100% Recyclable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P www.ncil.or.kr  
EMAIL nodl@hanmail.net SNS @nodcil  
TEL 02-766-9103 MOBILE 010-5766-9103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P www.420pan.or.kr  
EMAIL centerpan@420pan.or.kr  
TEL 02-6082-6420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 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격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하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T 02-766-9120 F 02-6937-1701 E nodeul@gmail.com

“제가 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 나는 나다. 그러니 당신이 바뀌어라. 나를 예전의 나로 봐달라’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저부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잖아요. (...)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상경험자를  
화상경험자가 아닌 그 사람 자체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화상경험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만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다고 봐요.”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  
화상경험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저자 송효정, 박희정, 유해정, 홍세미, 홍은전. 2018. 온다프레스

노들바람은 우리의 아름다운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생종이를 사용합니다.

₩10,000

